



참여 | 협력 | 영광

서울대 총동창신문

개학 1895년
통합개교 1946년
창간 1976년 4월 24일

www.snua.or.kr

[월간 제534호] 2022년 9월 20일



04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리더는 트렌드 읽고 방향 제시하는 사람”

05 관악경제인회 창립총회
청년기업인 육성 선배들이 나선다

06 동문 나눔 골프대회 153명 참석
4078만원 모금, 모교 수해복구 지원



12 안창영 전 치대·치대원동창회장
치대 100주년 맞아 1억원 기부

올해 장학생 1300여 명에 32억원 지원

본회 2학기 장학금 수여식

3년만에 대면 개최, 기부자 10여 명 참석
“선배들 정성이, 힘든 시기 희망 되길”

“장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런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8월 24일, 약 3년 만에 열린 관악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김종섭 이사장이 장학생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모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관악회는 2학기 장학생 670여 명에게 15억5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로써 관악회는 올해 모교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1300여 명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장학금 등 총 32억여 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관악회 장학금 수여식은 2019년 2월 이후 열리지 않았었다. 이날 관악회 김종섭 이사장과 이경형 상임이사, 모교 여정성·최해천 부총장을 비롯해 관악회 장학금을 출연한 동문 및 관계자들이 장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수여식을 찾았다. 장학생 중엔 신입생 90명과 국제 학생 등 학부생 601명, 석사과정 44명, 박사과정 15명, 석·박사 통합과정 10명이 포함됐다. 특정 동문 또는 관악회와 결연을 맺어 지급하는 결연 장학금은 240명이 받았다. 결연 장학생에겐 6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2~3면에 계속



8월 24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2022학년도 2학기 관악회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기부자 10여 명, 장학생 670여 명이 3년 만에 대면으로 장학증서를 주고받았다.

인명록 관련 전화, 응하지 마십시오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2011년, ㈜한우리SJM과 5차례에 걸쳐 서울대동문인명록을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까지 (주)한우리SJM을 통하여 3차례 인명록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인명록을 발간하려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동문님들께서도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 인명록 발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대총동창회에서는 2022. 9. 15. (주)한우리SJM에게 위 인명록 발간을 의뢰한 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저희 총동창회는 그간 (주)한우리SJM 측에서 저희와 구체적인 상의 없이 4차 인명록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동문님들께 개인정보 확인 전화, 인명록 대금 납입 지로 용지 발송, 광고 요청 등의 행위를 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제 서울대총동창회가 (주)한우리SJM에게 인명록 발간을 의뢰한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앞으로 어느 누구로부터라도 위와 같은 인명록 발간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인명록 구매대금의 송금 또는 광고 요청 등이 있을 경우, 동문들께서는 이에 일체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에서는 ㈜한우리SJM과의 법적 문제를 고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법률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 9. 19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관악춘추

방시혁의 ‘꿈’ 허준이의 ‘목표’



임석규
언어84-91
한겨레 선임기자
본지는설위원

서울대 후기 졸업식 축사가 화제였다. 수학기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올해 수상자인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위로를 얻었다며 축하 전문을 공유하는 이들이 많았다. 내용은 물론, 성공한 선배의 과시 섞인 훈계와 거리가 먼 이야기 방식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모양이다.

그중에서도 ‘병원의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정신 팔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대목에 특히 눈이 갔다. 그가 차례로 언급한 취업, 창업, 결혼,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는 현대적 삶이 운명처럼 강요하는 시스템이다. 그 회로화된 삶에 갇힌 개인들은 정해진 행로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조바심 내고 발버둥 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허 교수는 출발부터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었다. 서울대 물리학과 3학년 때 그는 5과목 가운데 4과목에서 F 학점을 받았다. 그의 말따라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도 길 잃음의 연속’인 대학 생활이었던 것. 그가 정해진 레일을 따라 남들 다 가는 통상적인 경로를 걸어도 과연 오늘의 위치에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진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목표 이데올로

기’가 만연해 있다. 미래에 대한 꿈이 확실하고, 목표가 분명해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 ‘꿈은 이뤄진다’는 식의 사고 말이다. 물론 유용하고 좋은 얘기도.

하지만 ‘뚜렷한 목표 설정과 그곳을 향한 일로매진’ 이전에 그 꿈과 목표의 실체가 뭔지부터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 꿈이란 게 자신의 고유한 꿈인가, 아니면 사회가 선택하는 타인의 꿈인가. 자신의 진실한 욕망이 빠진 사회적 기준, 타인의 시선으로 재단된 목표를 향해 밤잠 설치는 일은 얼마나 헛되고 허무하고 부질없는가. ‘목표 이데올로기’에 대한 허 교수의 거부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뭘 해야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마음이 경직된다”며 “오히려 목표를 정확히 두지 않으면 지적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을 일군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도 화제를 모은 3년 전 졸업식 축사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다. “구체적인 꿈 자체가 없다. 그러다 보니 매번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에 따라 선택했던 것 같다.” 그 역시 구체적 목표의 무용함을 일찍 터득했던 듯싶다.

예외적 성취를 이룬 허준이와 방시혁은 그 탁월함뿐만이 아니라 진솔하고 담백한 체험담으로도 서울대를 넘어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이런 서울대인들의 모습을 더 자주 보고 싶다.

알림

제43차 서울대학교 홈커밍데이 겸 동문 화합 한마당

일 시 : 2022년 10월 16일(일) 오전 11시~오후 3시(접수 및 행운권 배포 : 오전 11시~낮 12시 30분, 버들골)

*올해부터 접수장소가 버들골로 변경되었습니다.

장 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버들골

*우천 시 실내(종합체육관)행사로 대체

행사내용 : 중식, 레크리에이션,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 *오전 11시 이전에는 자율적인 모교 캠퍼스 투어 실시.

참가방법 : 양식에 맞춰 2022년 9월 30일(금)까지 문자메시지(1877-2039) 또는 이메일(member@snua.or.kr)로 접수

* 평생회비 또는 올해 회비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 참석가능

참가신청양식

제목 : 홈커밍데이 참가 신청

성명 :

학과 / 입학연도 :

인원수 :

*특별과정은 과정보명 및 기수 기재

홈커밍데이 행사 협찬 요청

총동창회의 모든 행사는 동문님의 귀한 후원으로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올해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성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청 내용 : 10만원 이상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401-137376 (예금주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성함, 학과, 입학연도 표기 (특별과정은 과정보명 및 기수 기재)

- 신용카드 : 홈페이지 www.snua.or.kr ‘회비·후원금 납부하기’ 클릭

문 의 : 02-702-2233

*보내주시 정성에 대한 고마움의 뜻은 ‘서울대 총동창신문’에 영원히 기록하겠으며, 정성껏 마련한 답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 발송예정)

별지부록 : 장학금 기부 참여 신청서

80세 넘는 기부자 선배들, 후배 격려 위해 모였다



국어국문학과 4학년 이호연(왼쪽)씨가 단상에 올라 김종섭 관악회 이사장을 비롯한 기부자 동문들 앞에서 장학생 선서문을 낭독하고 있다. 선서문에는 본회 장학사업이 면면히 계승될 수 있도록 졸업 후 장학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지 102곳에서 장학금 지급 송경희·노만수 부부 1억원 기부

>>1면 '장학금 기사'에서 계속

8월 24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김종섭 관악회 이사장은 “평균 연령 80세가 넘는 기부자들께서 팬데믹이라 조심스러우실 텐데도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다”고 소개했다. 특히 95세 나이로 수여식에 참석한 임광수(기계공학48-52 임광도건 명예회장) 본회 고문에 경의를 표했다. 김 이사장은 “임광수 고문님께서 20여 년 전 열악한 상황에서 장학사업을 위해 대한민국 실정에 맞춰 도화동에 장학빌딩을 건립하셨고, 그 임대 수익으로 오늘 장학금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알리며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를 밝게 하고 발전시킨다”고 말했다. 임광수 고문이 설립한 임광특지장학회는 이번 학기 가장 많은 76명에게 총 2억17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어 장학생들에게 “기부자들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 장학생에게 인사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장학금이 여러분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피드백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을 꺼냈다. 자신도 ‘김종섭 특지’를 운영하고 있는 김 이사장은 “정신 건강과 학업에 도움이 됐다거나, 건의도 좋으니 활발한 피드백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정 총장은 여정성(가정관리79-83) 교육부총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장학생 여러분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지식인이 돼야 한다”고 부탁하고, 기부자들에게는 “후배들에게 전하신 따뜻한 마음이 금지와 자부심이 돼 다시 동문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였지만 적지 않은 기부자들이 기꺼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기존에는 참석한 장학생 모두 단상에 올라와 장학증서를 받고 기념촬영도 했



지만, 이번 수여식에선 대면 상황을 줄이기 위해 특별로 대표 학생 한 명만 단상에 올랐다. 나머지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했다.

임광수 임광도건 명예회장, 김찬숙 청야한치과의원 이사장, 정팔도 코리아랜드컴파니 대표와 부인 이자행 여사, 안성철 유니온테크 회장, 정충시 세진에이엠 사장, 권혁한 보건대학원 동창회장, 조기호 기호물산 회장, 성백전 케이씨아이 회장, 박호진·김영희 특지 기부자 김영희 여사와 딸 박소현씨, 생활대동창회 최명진 고문과 방남순 감사, 미대동창회 이민주 상임부회장, 김은산 흥익대 명예교수, 기소장학재단 채수곤 이사가 참석했다. 모교 여정성 교육부총장, 최해천 연구부총장도 함께 했다.

장학생 대표로 단상에 오른 이호연(국문 4년) 씨는 “학교를 오가는 등하굣길, 끼니를 해결하고, 책장을 넘기는 학교에서의 일상들이 선배님들의 지지로 뒷받침돼 있음을 기억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장학생을 대표해 ‘선배님들의 조건 없는 송고한 뜻이 면면히 계승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졸업 후 장학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으로 선서했다. 음대 동문들의 축하 연주가 이어졌다.

수여식이 끝난 후에도 기부자와 장학생들은 문화관 앞 곳곳에 둥그렇게 모여 인사를 나누고 미처 전하지 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장학생 이신애(사범대 박사과정)씨는 수여식장을 나서는 임광수 고문에게 ‘장학생이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 뜻밖의 만남에 임 고문은 얼굴 가득 웃음을 띄우고 ‘공부 열심히 하라’며 이씨의 어깨를 두드렸다. 장학증서를 들고 기념 사진도 촬영했다.

이번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는 이신

애씨는 “선배님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었는데 단상에 올라갈 기회가 없어서 식당 앞에서 기다렸다. 메일이라도 한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며 “학부생만 포함할 수도 있는데, 석사나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도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다. 수여식에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 것과 축하 연주도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본회 장학사업은 1980년 장학생 10여명 규모로 시작해 임광수 회장 대에 동문들의 성원에 힘입어 SNU 장학빌딩을 건립하면서 크게 확대됐다. 현재 한 학기 장학생 600명대, 장학금 규모 15억원에 이른다. 5000만원 이상 기부자가 설립하는 특지 및 기금장학회는 8월 말 현재 기준으로 164개다. 3월에 20억원을 본회에 쾌척한 고광석 동문은 ‘고암(孤巖) 늘푸른 지도자 양성재단’이라는 특지명으로 이번에 첫 장학금을 지급했다.

최근에 ‘로즈(ROSE)’ 특지를 설립한 송경희(식품영양74-78 명지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동문과 남편 노만수(의학72-78) 동문이 5000만원을 추가 기부해 총 1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송경희·노만수 동문은 꾸준히 선행을 실천해온 부부다.

송 동문은 전문직 여성 봉사단체인 국제존타 한국지구 총재를 역임하는 등 사회 봉사에 힘써왔다. 유방·갑상선 수술 전문가인 노 동문은 의대 외과학교실에 ‘노만수 연구기금’ 1억원 외에도 ‘창의적 연구자 기금’과 장학금 등으로 1200여 만원을 의대에 기부했다. 노 동문은 레지던트 시절이던 1982년 좌석버스에서 하차 중 쓰러진 시민의 응급처치를 도와서 모교 병원장으로부터 ‘살아있는 시민정신’ 표창장을 받은 적도 있다.

두 동문 부부가 함께 쓴 책 ‘노만수 박사 부부의 성공적인 수유법’의 인세 전액을 유니세프에 기부하고, 그간 수집한 동아시아도자기 1230여 점을 명지대에 기증하기도 했다. 두 동문은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선한 기운이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임광수 본회 고문과 장학생 김효진씨



김찬숙 기부자와 장학생 박성진씨



정팔도·이자행 기부자와 장학생 박다미씨



안성철 기부자와 장학생 강예림씨



권혁한 보건대학원동창회장장과 장학생 이정아씨



김종섭 관악회 이사장과 장학생 문성우씨



조기호 기부자와 장학생 김동현씨



성백전 기부자와 장학생 김기윤씨



기부자 김영희·박소현씨 모녀와 장학생 신동혁씨



방남순 생활대동창회 감사와 장학생 이호준씨



김은산 기부자와 장학생 김동규씨



기소장학재단 채수곤 이사와 장학생 이현욱씨

“장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습 인사에 함박웃음

기부자 인터뷰

“자랑스러운 큰딸 이름으로 세상 돕습니다”

정기웅 (대학원83-89) 동문 가족

세상 떠난 정현영 동문 기리며 분회 장학금 1억원 기부



정기웅 동문의 가족사진. 왼쪽 두 번째가 4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첫째딸 정현영 동문.

“세상살이에 호기심과 즐거움이 넘쳤던 아이, 삶을 사랑했고, 매 순간 기쁨으로 충만하게 빛났던 딸의 못다한 꿈이 이어지길 바라며 기부합니다.”

지난 5월 정기웅(대학원83-89) 동문·이윤희씨 부부가 4년 전 세상을 떠난 첫째딸 정현영(불문10-15) 동문의 이름으로 분회에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정현영 동문이 다녔던 UCLA에 50만달러를 쾌척한 데 이어서다. 짧지만 아름다웠던 생애와, 기부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어렵사리 얘기를 청했다.

“이민자 가정이지만 힘든 내색 없이 잘 헤쳐왔던 큰딸은 새로운 시도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서울대에서 보낸 시절이 가장 행복했습다.” 정 동문 부부는 정현영 동문이 3살 무렵 아르헨티나로 이민했다. 한인들의 섬유 산업이 활발한 현지에서 원단을 수입하고 생산하는 회사 ‘기리나 텍스(Kilina Tex)’를 차려 운영해왔다. 고교 졸업 후 정현영 동문은 방학 때가 본 한국에 매료돼 충분히 갈 수 있던 미국 대학을 마다하고 서울대를 택했다.

부모가 바라본 정현영 동문은 늘 분주하게 뭔가를 해내던 딸이었다. 전공인 불어불문학 외에도 서어문학과 경영학을 부전공하면서 영자신문 동아리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틈틈이 관악구청에서 어린이 영어교습봉사, 대형병원 외국인 환자 통역 봉사도 했다. 작은딸 정현정(경영11-16) 동문도 언니를 따라 서울대에 진학해 재매가 학교 앞에 방을 얻어 함께 살았다.

인권에 관심이 많아 모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미국 UCLA 로스쿨에 진학했다.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한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였다. 머리가 아파 찾은 병원에서 청천벽력같은 병을 진단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했다.

로스쿨 졸업 후엔 대형 컨설팅 펌에 입사가 확정돼 있었다. 무척 속상했을 텐데, 병석에서도 가족들을 위로하며 따뜻한 마음씨를 잃지 않았다.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아르헨티나 한인 사회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부모를 보고 자라서일까. 어머니 이윤희씨는 “아이들에게 가진 만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현영이가 원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다”고 했다. “대학생 때부터 후원하던 아동 수를 투병 중에 늘렸어요. 탄자니아 학생들이 화장실이 열악해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아파 해 딸 이름으로 우물을 만들고 화장실과 강당도 지어줬죠.” 내 딸같은 젊은 환자들이 눈에 밝혀, 암 정복에 도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당 모교 병원에 1억3000만원을 기부했다. 그런 지성에도 불구하고, 반 년간

병마와의 싸움 끝에 정현영 동문은 2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가슴에만 묻어두기엔 너무 빛나는 삶이었다. 소식을 들은 UCLA 총장과 로스쿨 학장이 위로 편지를, 교수진과 친구들은 추도식 영상을 보내왔다. ‘에너지와 생명력 가득했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람들의 선한 면을 포착할 줄 알았던 친구였다’는 헌사와 함께, 로스쿨에서도 주말엔 불벌채류자들의 서류 작성을 돕거나 불우 아동을 위해 법률 상담 활동을 했던 큰딸이었다. ‘엄마, 한 아이가 시력이 나빠서 큰 글자가 보이는 태블릿 PC가 필요하대. 내 거라도 주고 싶는데, 봉사자는 물품을 주면 안 되대’ 안타까워 했었다.

UCLA 로스쿨에 ‘jessica Hyun young Chung’ 이름으로 50만달러를 기부해 영원히 지속되는 장학금을 만들었다. “인권에 관심 있는 이민자 가정 출신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이 장학금으로 공부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학생에게 써달라”고 했다. “하루는 동급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경쟁 심한 로스쿨에서 도움 받기 쉽지 않는데, 현영이가 필기 노트를 흔쾌히 빌려줬대요. 그 인연으로 자신도 얼마간 장학금을 보태겠다고요. 친구들도 작은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 따뜻한 반향에 힘입어 찾아온 곳이 서울대다. 딸이 많은 추억을 쌓았던 곳이고 가족 중 셋이나 인연을 맺기도 했다. 동생 정현정 동문도 ‘언젠가 언니에게 갈 몫을 사회에 나누자’는 뜻에 동의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하느님께서 일찍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악에 물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다. 짧은 생애 동안 완성에 다다른 그는 오랜 세월을 산 셈이다.” 이윤희씨가 딸을 잃고 매일 성당에 나가 울며 기도할 때 위로가 된 성경 구절이다. 너무나 충실한 삶이었지만 딸이 흑시라도 못다한 일이 있을까 부모는 세상 구석구석을 둘러본다. “정말 이렇게 어여쁜 아이가 내 자식이었나, 너무 과분한 자식을 두고 자격 없는 부모는 아니었나. 그 서러움과 그리운 마음에 현영이를 추모하고 기리는 기회가 오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픈 심정입니다. 우리 딸 같은 총명한 젊은 이들이 세상의 걸림돌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할 때, 우리의 하찮고 작은 도움이나 현영이 얘기가 등불 같은 위안과 격려가 됐으면 합니다.” 박수진기자

2022년 2학기 특지장학금 수여 현황

특지명	수혜 인원	장학금 총액 (단위:천원)
홍성대(수학57-63) 전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5명	17,500
김주진(법학54입)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회장	11명	32,847
이길여(의학51-57) 가천대 총장	2명	4,884
고 오동영(조선항공공학54입)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부인 김찬숙(치의학56-60) 청아한치과의원 이사장	12명	50,000
고 양은숙(간호51-54) 전 대한간호협회 재정위원장	2명	5,950
정팔도(AIP 17) 코리아랜드컴퍼니 회장·부인 이자행 여사	10명	42,352
황해근(토목공학54-60) 동일기술공사 회장·부인 고 이금옥 여사	3명	2,900
이종기(경영69-73) 상영무역 회장	2명	5,000
고 정석규(화학공학48-52) 전 신양문화재단 이사장	1명	2,500
화학과동창회	1명	2,975
김병순(AMP 47) 이화여대 이영희연합회 상임고문 장남 이지호(의학77-83) 모교 의료대 정형외과 교수	4명	4,000
홍상욱(원예83-87) 성지출판 대표	2명	5,000
고 손치무(대학원70졸) 전 모교 지질학과 명예교수	1명	3,802
(임광) 임광수(기계공학48-52) 임광도건 명예회장	76명	217,850
안성철(행정58-63) 유니온테크 회장·부인 손순숙 여사	1명	2,442
정충시(화학공학72-76) 세진에이엠 대표	1명	2,000
곽영필(토목공학56-60)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11명	33,030
고 명태현(기계공학46-50) 전 송원기업 대표	1명	2,998
기계동문회	2명	5,000
장학순(토목공학46-50) 삼양이앤엘 회장	3명	7,500
곽동현(법학61-65) 곽동현법률사무소 변호사	1명	2,442
이상범(행정53-57) 변호사·부인 고임씨 여사	1명	3,109
보건대학동창회	1명	2,900
수학과동창회	1명	2,450
김정희(약학57-61) 시인	1명	2,442
우인석(기계공학58-62) 전 인터넷시스템 회장	2명	6,800
강신호(의학46-52)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9명	27,676
고 오을현(생유공학67-71) 전 변별·나임시험발전 대표 부인 추경옥 여사	1명	2,998
최희장(생유공학58-64) 대성사 대표	1명	2,998
농대 그린장학회	1명	2,800
이종현(경제59-65) 덕인 회장·부인 신갑순 여사	1명	3,653
고 김상하(정치45-49) 삼양그룹 명예회장	1명	3,000
김종섭(사회사업66-70) 분회 회장	18명	54,448
김은중(경제59-63) 뉴프라이드그룹 회장	4명	12,000
(聯衆) 이재원(생학55-59) 원원씨 회장	6명	16,419
(희망) 박희망(AIC 97) 남성정밀 회장	1명	2,442
이금기(약학55-59) 일동제약 명예회장	1명	3,000
신창제(의학72-78) 교보생명보험 회장	20명	50,000
고 박관호(화학공학47-51) 전 동국대 명예교수 부인 고 신명규(생물교육48-54) 전 관악회 이사	8명	21,143
김두희(물리52입) 전 숙명여대 물리학과 교수	3명	8,925
고 김정철(건축52-56) 전 정림건축 명예회장	1명	2,998
김정식(건축54-58) 목천김정식문화재단 이사장	2명	5,677
남정현(건축57-61) 전 대우테크 고문	2명	5,975
이준현(생유공학48-54) June Commercial 회장	1명	2,975
이윤주(의학81-87) 링크리닉 회장	1명	2,442
고 권영대(약학55-59) 덕홍상사 회장	1명	5,038
(원일) 정계영(생학61-66) 원일전선판매 회장	10명	29,388
고 김정식(전자공학48-56) 대덕전자 회장	10명	29,980
자원철(건축73-77) 이지바이오시스템 회장	1명	2,950
조필제(조선항공공학46-50) 세양주택 회장	5명	14,773
나공목(상학56-61) 코오롱그룹 고문	1명	2,442
조기호(화학교육54-58) 기호물산 회장 부인 이영자(생물교육56-60) 여사	6명	18,000
고 구평희(정치47-51) 전 터미 명예회장	9명	25,784
이정상(상학59-65) 보생 회장	1명	2,442
이예식(약학46-49) 전 극동제약 명예회장	1명	4,481
이준용(경제56-60) DL 명예회장	17명	47,660
이형도(화학공학61-67) 삼성전기 고문	1명	2,998
김문현(상학58-64) 대일씨앤이 회장	2명	4,000
(德門) 미국철(공업교육68-72) 한국열연 사장	2명	6,000

(장학금 출연소)

특지명	수혜 인원	장학금 총액 (단위:천원)
박남식(SGS 27기) 윤촌문화사상연구회 회장	1명	2,442
상백전(토목공학52-56) 케이씨아이 회장	2명	5,996
김중서(경제58-63) 세보 M.E.C 회장	1명	2,975
하상원(치의학64-70) 신홍치과의원 원장	1명	2,975
박호전(경영62-66) 삼덕 회장·부인 김영희(작곡62-66) 여사	12명	32,986
변주선(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2명	4,884
김광태(BCP 207기) 대림성모병원 이사장	1명	3,000
조경일(약학64-68) 하나 제약 회장	1명	3,000
허남길(경제56-60) 삼양통상 회장	7명	19,318
손경식(법학57-61) CJ그룹 회장	2명	5,417
장병덕(화학교육53-57) 단일시스템 회장	1명	2,998
김동길(화학교육57-61) 경인양행 명예회장	2명	4,000
고 김중현(경제55-59) 전 서해안문화연구소 회장	1명	2,442
(두산) 박용성(경제59-65) 전 두산중공업 회장·박용현(의학62-68) 연강재단 이사장·박용만(경영73-78) 전 두산그룹 회장	8명	27,364
홍예표(치의학65-71) 홍예표치과의원 원장	1명	5,000
염병윤(외교60-64) 유라코퍼레이션 회장	1명	2,975
약대동창회	3명	5,000
박성훈(기계공학58-63) 전 모간 대표	3명	8,712
유상부(토목공학60-64) 포스코 고문	2명	5,440
고 전동용(수의학52-56) 전 동화농산 대표	1명	4,645
고 장명옥 모교 가정관리학과 명예교수(사대 가정교육과 및 생활과학대학 동문 110명)	4명	6,800
윤세영(행정56-61) SBS미디어그룹 명예회장	4명	18,733
허부열(경영74-78) 아섬 사장	1명	2,442
강신혁(종교66-73) 전 대우테크 대표	2명	5,950
(김병수) 김하영(의학70-76) 강동성심병원 비뇨기과 교수	2명	3,000
오인석(행정58-62) Philip Investment 회장	1명	3,109
이원규(농생물58-63) 전 산림청 임업연구원 산림미생 물과장	1명	2,000
(양천) 고 김운택(경대원68-70) 전 양천장학회 이사장	1명	1,000
미술대학동창회	5명	5,000
(인화) 노인환(경제54-58) 자유북한방송 방송위원	2명	4,884
(윤이광) 고 윤홍중(약학55-59) 전 금강약국 대표 부인 고 이상임 여사	2명	7,479
오인섭(지질60-64) 전 코리아이오텍 대표	1명	3,802
(김재일(물리93-00)) 김중희(경제65-69) 전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2명	5,950
(동양) 손경수(경제56-60) 동인안전 명예회장	1명	3,828
손진만(전기공학90-94) 호서대 교수	1명	2,500
(덕재) 박준대(경성치과의학교26졸) 박희숙(국어교육56-60) 박향숙(응용미술58-62) 동문	1명	2,500
(學而)	1명	3,000
이광호(금속공학77-81) 카피온테크 대표	1명	2,998
고 한승희(법학55-61) 전 이메디칼 대표	1명	2,442
고 조남일(토목공학61-65) 전 한국환경협회 회장	2명	3,000
신수경(기약59-63) 모교 기약과 명예교수	1명	3,916
(동불장학회) 김영태(금속공학81-85) 전 SK넥셀리스 대표	1명	1,500
고 김현산(법학54-58) 전 명지대 법대 교수	9명	9,000
박영구(상학62-67) 삼성코딩 고문	2명	6,047
(起鳳) 이기방(영어교육59-63) 기소장학회 이사장	3명	5,600
(孤曠) 고광석 (회화59-63) 박희(63-66) 부인 장민자 여사	2명	6,911

* 2022년 8월 말 현재 특지 및 기금장학회는 총 164개이며, 이번 학기에는 102개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함.

결연장학금 수여 현황

결연장학금 출연자	수혜 인원	장학금 총액 (단위:천원)
재단법인 관악회	233명	401,400
강신주(사회교육51-55) 상산 대표	1명	2,442
박대선(조선공학82-86) 동문	1명	2,500
정영민(기약92-96) 평택대 음악학과 교수	1명	1,200
이세훈(화학생물공학10-15) 동문	1명	1,000
김선리(사학64-68) 전 난우회 회장	3명	3,000

2학기 단대·과 동창회 장학금 4억원 넘어

2022학년도 2학기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학과 동창회의 장학금을 조사한 결과 본지에 집계된 20개 동창회에서만 총 211명의 재학생에게 약 4억4628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총액은 상대동창회의 향상장학재단이 1억15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학생 수는 농생대동창회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대는 학과·학부 단위 동창회의 장학사업이 활발하다. 전자전기정보공학재단은 이번 학기에만 17명의 재학생에게 약 61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단과대학동창회 못지않은 규모를 자랑한다.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가 1명에게 350만원을, 분회 특지 장학회를 통해 기계동문회와 화학과동창회가 각각 500만원, 297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여성 사학과 동문회 ‘난우회’는 2월에 장학생을 선발해 1, 2학기에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4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각 단과대학 및 학과 동창회 장학금

*천원 이하 단위 절사

상대향상장학재단(이사장 조문순)=56명	1억1587만원
농생대동창회(회장 서병륜)=57명	8555만원
전자전기정보공학재단(이사장 정덕균)=17명	6110만원
생활대동창회(회장 홍형욱)=13명	3737만원
사대동창회(회장 이규석)=13명	3518만원
의대동창회(회장 임수홍)=5명	2500만원
정치외교학부동창회(회장 김호섭)=10명	2000만원
치대·치대원동창회(회장 한성희)=4명	1200만원
수의대장학재단(이사장 김건호)=2명	929만원
간호대동창회 교육연구재단(이사장 허영)=10명	670만원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김연명)=5명	540만원
약대동창회(회장 원희복)=3명	500만원
미대동창회(회장 권영길)=5명	500만원
기계동문회(회장 김진오)=2명	500만원
난우회(회장 백복실)=4명	400만원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회장 신우성)=1명	350만원
화학과동창회(회장 김낙중)=1명	297만원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권혁한)=1명	290만원
수학과동창회(회장 김동수)=1명	245만원
임학동문회(회장 정을수)=1명	200만원

“리더는 트렌드 읽고 방향 제시하는 사람”

김해련 (AMP 79기, AIP 63기)

태경그룹 회장

김해련 동문은 첫 번째 또는 1호의 이력이 많다. 미국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한 뒤 29세의 젊은 나이에 여성복 브랜드를 창업했고 199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의류 쇼핑몰 ‘패션플러스’를 만들었다. 소비자 패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국내 1호 트렌드 컨설팅트이기도 하다.

그렇게 창업주로서 20년간 활동했고 2012년부터는 부친이 운영하던 태경그룹에 합류해 회장직을 맡고 있다. 20년간은 창업주로서, 10년간은 창업주 2세 CEO로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와의 인연은 부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부친인 고 김영환 회장이 서울대 상대 상학과(현 경영학과, 54학번) 동문이다.

김해련 회장은 학부는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서울대 AMP(최고경영자과정)를 통해 동문의 인연을 맺게 됐다. 8월에 공식 출범한 관악경제인회의 상임부회장에 추대됐고, 신입 서울대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총장 추천위원을 맡고 있다.

본인 스스로 “사업가 DNA가 항상 꿈틀거린다”고 할 만큼 김 동문의 가장 큰 강점은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남다른 촉이다. 서울대 사람들의 조직은 ‘망하지는 않지만, 혁신다운 혁신은 없는 게 대부분’이라며 쓴소리로 덧붙였다. 최근 한국경영학회가 수여하는 혁신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 동문에게 여성 창업자로서, 경제인으로서 걸어온 길과 미래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대학 졸업 후 뉴욕에 유학 가서 패션디자인을 공부하고 국내에 돌아와 29세에 첫 창업을 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기업가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미국 뉴욕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공부 중이라 저도 뉴욕 페이스대에서 MBA 과정을 밟았습니다. 자체 공장 없이 브랜드만으로 성공을 거두는 나이키의 경영사례가 당시 큰 이슈였습니다. 거기에 자극을 받아 브랜드 사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MBA 후 뉴욕주립 패션 공과 대학(FIT)에 입학해 패션을 공부했습니다. 사넬 등 디자이너 브랜드를 꿈꾸며 공부한 거죠. 귀국 후 아버지로부터 종잣돈을 받아 지하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아드리안느’라는 여성 패션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29세 때입니다.”

-결과어 어땠습니까.

“패션 브랜드를 어디에 입점하면 성공할 수 있는냐고 주변에 물어보니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수입이 허용 안 돼 해외 명품 브랜드가 백화점에 없었습니다. 무작정 백화점 매입부 담당자를 찾아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입점 의사를 밝혔죠. 막 웃더라고요. 경험도 없고, 샘플 몇 개 갖고 와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당시 미국 MBA에서 공부하고 FIT를 나온 젊은 여성



대담: 방문신 (경영82-89) SBS문화재단 사무처장

이 패션 브랜드를 한다고 하니 무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신세계 이미지도 올려주고,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입점해야 할 이유를 정성껏 준비해 가니까 담당 부장님이 감동하는 눈치예요. 첫 미팅 후 3개월 지나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그마한 매장이 석 달 정도 빌 것 같은데 한번 장사를 해보라고요. 그렇게 신세계 본점에 입점해 3개월 열심히 했더니 전체 브랜드 중에 중간 정도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신세계는 물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까지 정식 입점하면서 장안의 화제가 됐죠. 8년 정도 아드리안느 브랜드 사업을 하다, IMF 사태를 맞아 여기저기 백화점들이 무너지고, 수입 브랜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좀 어려워졌어요. 한 달 1억 원 매출이 3000만원으로 떨어지고, 재고가 쌓이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때 우연히 삼구(39)쇼핑(현 GS홈쇼핑)의 지인이 찾아와 옷을 팔아보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팔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싼 브랜드가 홈쇼핑에서 팔릴까 했는데, 30~40%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니, 1시간 만에 재고가 동이 나더라고요. 그때 매장 없이 무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컴퓨터를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신촌 중앙정보처리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1997년쯤 이야기예요. 그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들이 막 생겨날 때지요. 검색사, MS오피스 자격증을 땀어요. 친한 친구 네 명이 공교롭게도 인터넷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메일도 비교적 초창기에 쓰기 시작했고, 이 분야에 일찍 눈을 뚫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요즘 홈쇼핑에 입점해서 옷을 팔고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확장하려고 한다고 하니 당장 하라는 겁니다. 아마존을 알려주면서 ‘여기가 요즘 핫한 온라인 서점’이라면 서도 분명 팔릴 거라고 응원을 해줬어요.

아마존에서 책도 사보고, 6개월간 인터넷 비즈니스 교육을 받은 뒤 19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의류 쇼핑몰인 ‘패션플러스’를 창업했죠.

2000년대 초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도 받고, 주식 상장 기대도 컸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온라인 의류 쇼핑몰도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면서 레드오션이 돼 버렸지요. 주식 상장을 기대했는데, 못하고 매각한 게 좀 아쉽죠. 패션플러스를 대명화학(회장 권오일 심리81-85)에 매각할 무렵 800억 매출을 기록했는데, 지금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 후 트렌드 컨설팅 회사를 인수해, 소비자 트렌드라는 영역을 개척해 기업 컨설팅으로 활동을 했죠.”

-창업 경력 20년 정도 되고, 2012년 태경그룹에 합류해 10년 되셨네요. 이런 경력 이 흔치 않는데, 처음부터 부친의 사업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30년 전 아버지 사업도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50이 채 안 됐을 때죠. 그때 제 나이는 20대 초반이었고요. 제가 당시 가서 할 일도 별로 없었죠. 29세에 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잘 돼서 아버지 사업을 인수하겠다고요. 아버지도 늘 ‘우리는 좋은 비즈니스 경쟁 상대’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상 창업을 해야 하는 DNA를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누구 밑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사는 스타일이 못 됩니다.”

-2014년에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태경그룹을 이끌어 오신 지 대략 8년 됐죠. 경영 철학



뉴욕서 디자인 공부 뒤 29세 창업

국내 첫 인터넷 의류쇼핑몰 오픈

데이터 경영으로 5000억 매출 이뤄

관악경제인회 상임부회장도 맡아

이 궁금합니다.

“변화, 혁신이죠. 그런데 그에 앞서 소재 산업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잖아요? 이곳에 와서 화학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 송원장학회 학생 중 서울대 대학원 과정에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았습니. 약 2년간 매주 월요일 2시간씩 기초 화학 교육을 받았어요. 큰 도움이 됐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계속 고민을 했죠.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진 시기, 태경그룹도 정체됐습니다. 사업 아이템들도 시대에 뒤쳐진 것들이 많았고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회사를 변화시켜야 할까, 지속 성장을 위한 사업 재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초창기부터 심어온 ‘공익, 공존, 공영’ 정신 위에 회사를 혁신할 수 있는 슬로건을 네 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R&D 마인드, 두 번째 혁신, 세 번째 소통, 네 번째 데이터 경영입니다. 하나로 요약하자면 스마트 경영인 셈이죠. 그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 모든 자료를 전산화시켰습니다. 공장도 스마트 팩토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경영이 완성됐죠. 인사고과에서 데이터 경영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 없는 이야기는 내 안에서 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혁신팀도 새로 만들었어요.”

-태경그룹 소개를 해 주신다면.

“회사 캐치프레이즈가 ‘소재로 세상을 바꾸다’입니다. 1975년 설립돼 반세기 가까이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던 기초 소재를 국산화하고 세계화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반도체,

철강, 조선, 화학, 제지, 화장품 등 모든 국내의 기간산업 분야에 기초 소재를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와 액체탄산가스, 생석회 등 13개 제품은 국내 1위입니다. 종이에 넣는 첨가제 ‘아스트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이며 그 외에 5개 제품을 국내에서 독자 기술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5000억원 규모로 10여 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고요.”

-서울대에서 AMP는 물론 AIP, SPARC 등 세 개 과정을 이수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회장님이 경험한 서울대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가서 보니 서울대가 시스템화되지 않은 게 너무 많더군요. 총장을 뽑는다고 하면 후보들의 데이터가 일목요연하게 쪽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 ‘그 후보가 그동안 했던 일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화해 둔 게 없냐’, 물었더니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최고 지성이 모여있는 서울대의 인사·참여 시스템을 혁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서울대 총장의 제1 요건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드렸다시피 혁신, 또 혁신입니다. 서울대 사람들이 잘 안 변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출신들이 변하면 우리나라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겸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린애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하잖아요? 개방적 사고와 남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해주어야 돼요. 우리 회사에도 서울대 출신이 많은데, 단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서울대 출신 대표들은 회사를 절대 망하게 하지는 않는데, 회사를 혁신시키지도, 발전도 못 시킨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생각도 많고 틀을 잘 못 깨요. 뭐랄까, 전문가는 많은데 창업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새로 출범한 관악경제인회 상임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세대 간 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갭이 커요. 경영자들이 젊은 세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MZ세대에게는 공정한 보상이 중요합니다. 사고를 전환하고, 거꾸로 우리가 그 친구들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사회는 많이 변했어요. 그 변화를 무시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관악경제인회 회원 되시는 분들이, 판단적인 사고를 버리고 어떻게 그런 친구들의 장점을 활용해 전체적인 파이를 키울 것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원 김영환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오래됐지요? 설립 취지를 들려주세요.

“아버지가 서울 상대 다니실 때 워낙 고생하셔서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겠다’는 생각이 강하했어요. 기업을 한 목적에 장학사업이 큰 부분일 정도로요. 그런 연유로 장학생 선발기준도 가정 형편입니다. 1983년 설립돼 지금까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학생 등 816명에게 1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매년 85명의 대학(원)생에게 1000만 원을 주는데,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집안을 책임지는 장학생들이 많아서 중복 수혜를 해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 2005년에는 화곡동에 기숙사를 마련해 지방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외 관심 있는 사회공헌 분야가 있다면.

“사회공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직원들이 좀 더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크죠. 더 나아가 직원들이 비전을 가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미래 트렌드를 읽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쉬운 일이라 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직원, 회사, 국가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죠. 회사가 지속 성장 발전하는 게 진정한 사회적 공헌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서울대 학생들에게 한 말씀 들려주세요.

“기부마인드를 학생 시절부터 가졌으면 합니다. 기부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잘 몰라요. 서울대에 어려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고요. 우리 장학생 가운데 서울대생이 많아요. 대부분 가정 형편이 지금처럼 어려운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알게 모르게 주눅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네트워킹이 좀 약하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의식적으로라도 함께 어울리는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이 생활화돼야 사회 나와서도 참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트주의를 커버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정리=김남주 기자

친환경 경영, 인구위기 극복, 후배 기업인 육성, 100세 시대 준비...



단상 왼쪽부터 관악경제인회 이희범 명예회장, 이부섭 회장, 김종섭 명예회장, 서병문 수석부회장 등 65명이 8월 26일 열린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관악경제인회 창립총회 4대 비전으로 사회 기여

본회 산하 관악경제인회(회장 이부섭)가 8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이부섭(화학공학56-60) 동진세미켐 회장이 정식으로 회장에 취임했으며 서병문(농공69-73 농생 대동창회장) 로지스윌그룹 회장이 수석부회장에 추임됐다. 김광수(경제77-81) 은행연합회 회장·김해련(AMP 79기) 태경그룹 회장·이상현(전자공학 85-89) KCC정보통신 부회장·민관기(사법87-91) 코스모스 약기 대표가 상임부회장을, 김종훈(건축69-73) 한미글로벌 회장과 안경태(경영71-75) 삼일회계법인 전임회장이 감사를 맡았다.

임시의장을 맡은 이희범(전자공학 67-71) 본회 명예회장은 “2년 전 총동창회장을 맡으면서 약속한 것 중 하나가 관악경제인회 결성이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회의를 못 하다가 오늘에야 총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동문 중 훌륭한 경제인이 많



이부섭 회장 서병문 수석부회장

인데 모임이 없어 큰 힘을 받지 못했다”면서 “동문 경제인이 상호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회원 개인의 번영은 물론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악경제인회는 본회 회장단 및 기부자 중 경제인을 중심으로 올해 3월 3일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서병문 수석부회장은 “관악경제인회가 처음 출발하는 지난 3월 회의에 제가 있었다”며 여러 동문의 의견을 듣고 긴 시간 고민한 끝에 정립한 비전을 발표했다. △첫째 지구를 살리기 위해 친환경 경영을 실천한다. △둘째 나라의 번영을 위해 인구 감소와 노령화 위기 극복 방안을 찾는다. △셋째 서울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후배 기업인들을 육성한다. △넷째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인생 100세를 준비한다 등이다.

김종훈 감사는 “처음엔 좋은 뜻을 갖고 시작해도 하다 보면 지지부진해지기 쉽다. 이런 문제엔 리더의 생각과 리더십을 받쳐주는 행정 내지는 조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악경제인회가 발전해서 5년쯤 후엔 고대경제인회를 추월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엔 이부섭 회장, 김종섭·이희범 명예회장, 여정성(가정관리79-83) 모교 교육부총장, 변주선(영어교육60-64)·성기학(무역66-70)·이찬일(경영67-71)·정팔도(AIP 1기)·최병민(외교71-75)·박영안(경영72-76)·윤철주(AMP 64기)·이의현(AIP 60기)·박식순(농업교육77-81)·손동연(대학원 82-84)·이종철(ACAD 86기)·박정수(AIC 33기)·이왕준(의학83-92) 부회장 등 65명이 참석했으며 이종호(대학원78-89) 과학교육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디지털로 선도하는 대한민국 혁신’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을 중심으로 국제 질서 및 안보 환경이 재편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해 재능 기반의 탁월한 인재 육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경태 기자

회장단

직함	이름	단대·특별과정	입학연도·기수	근무처
회장	이부섭	공대	1956	동진세미켐 회장
명예회장	이희범	공대	1967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본회 명예회장
명예회장	김종섭	문리대	1966	스튜디오 삼익악기그룹 회장, 본회 회장
명예회장	오세정	문리대	1971	모교 총장
수석부회장	서병문	농생대	1969	로지스윌그룹 회장, 농생대 동창회장
상임부회장	김광수	사회대	1977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상임부회장	김해련	AMP	79	태경그룹 대표이사 회장
상임부회장	이상현	공대	1985	KCC정보통신·오트그룹·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상임부회장	민관기	법대	1987	(주)코스모스약기 대표이사

감사

직함	이름	단대	입학연도	근무처
감사	김종훈	공대	1969	한미글로벌(주) 대표이사 회장
감사	안경태	상대	1971	삼일회계법인 전임회장

부회장단

직함	이름	단대·특별과정	입학연도·기수	근무처
부회장	변주선	사대	1960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부회장	김동녕	상대	1964	한세에스24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이찬일	상대	1967	서울에셋투자자산(주) 대표이사
부회장	이윤경	간호대	1965	CM총무병원 행정대표
부회장	성기학	상대	1966	영원무역(주)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이영덕	법대	1969	주식회사 한솔 회장
부회장	이승훈	공대	1970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회장
부회장	정팔도	AIP	1	코리아랜드컴파니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윤무영	FIP	14	(주)중우 회장
부회장	심문규	문리대	1971	글로벌아시아 대표이사
부회장	김영훈	법대	1971	대성그룹 회장
부회장	최병민	문리대	1971	깨끗한나라 회장
부회장	이수만	농생대	1971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부회장	홍석조	법대	1971	BGF 회장
부회장	박영안	경영대	1972	태영상선(주) 대표이사
부회장	김춘수	상대	1972	(주)한화 총괄 부회장
부회장	윤철주	AMP	64	우리그룹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허일섭	경영대	1973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김석수	공대	1977추	동서식품(주) 회장
부회장	구본준	자연대	1974	LX홀딩스 회장
부회장	이의현	AIP	20	대일특수강(주) 대표이사, 본회 부회장
부회장	박식순	농생대	1977	KS그룹 회장
부회장	김기남	공대	1977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부회장	손동연	대학원	1982	현대제뉴인 공동대표이사 부회장
부회장	방기석	SGS	14	(주)지비엠아이엔씨 대표이사, SGS동창회장
부회장	김형진	AIP	21	(주)세종텔레콤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문주현	ACPMP	6	(주)엠디엠, 한국자산신탁(주) 회장
부회장	김영재	공대	1977	대덕전자(주)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	윤종규	대학원	1982	KB금융그룹 회장
부회장	류 진	인문대	1978	(주)풍산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이종철	ACAD	86	ACAD 회장, ACAD동창회장
부회장	김상범	경영대	1978	이수그룹 회장
부회장	손주은	인문대	1981	메가스터디그룹 회장
부회장	손병환	농생대	1981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부회장	박정수	AIC	33	씨엔에프시스템(주) 대표이사
부회장	이주찬	AMP	92	굿모닝아이텍(주) 대표이사
부회장	최창원	사회대	1983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
부회장	이왕준	의대	1983	명지병원 이사장
부회장	박태훈	자연대	1984	넥스틴 대표이사

“소중한 돈 모교 후배 위해 잘 쓰겠습니다”

장학금 기부자 초청 오찬 개최 총장 공관에서 9명 참석

김종섭(사회사업66-70)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이 올해 1000만원 이상 장학회에 기부한 동문과 동문 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8월 30일 모교 총장 공관에서 열린 초청 오찬엔 1억원 이상 기부한 고광석(회화59-63 법학63-66)·장민자 부부와 이상주(토목58-63)·서병문(농공 69-73) 동문, 5000만원 이상 기부한 노만수(의학72-78)·송경희(식품영양 74-78) 동문 부부와 조종수(잡사66-70) 동문, 1000만원 이상 기부한 유성삼(기계공학59-65) 동문의 배우자 김경숙 여사와 이기방(영어교육59-63) 동문 등 9명의 기부자와 본회 김종섭 회장, 이경형(사회66-70) 상임부회장, 이승무(경제72-76) 사무총장, 송우엽(체육교육79-83)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본회 사회공헌 사업을 소개



올해 장학회에 1000만원 이상 기부한 동문 및 동문가족이 총장 공관에서 초청 오찬을 가졌다.

하는 한편 “기부하면 복 받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도와준다”며 “서울대 졸업장에 담긴 봉사과 책무의 뜻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고광석 동문은 “학창시절, 공부하고 싶어도 장학금이 없어 힘들었다”며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후배들을 돕고자 44년 살던 집을 팔아 20억원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병문 동문은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공영을 구상 중인데, 기부를 위해 가

족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과제가 된다”며 “거액을 기부한 여러분들에게서 노후를 배우겠다”고 말했다.

조종수 동문은 작은 기부자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 동창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대학 때 장학금 받았던 일을 상기하며 기부했다”며 “동문들이 기부 경쟁을 벌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만수 동문은 “아내가 기부에 관심이 많아 함께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부인 송경희 동문은 “기부를 통해 선한

사회공헌위, 저소득층 학생 및 난치병 어린이 지원

본회 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변주선·류 진, 이하 위원회)는 최근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지원과 난치병 어린이 치료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말 사회공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1차 회의에서 △형편이 어려운 모교 동문 지원 △어린이 난치병 치료지원 △서울시 교육청 협력사업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사회공헌 행사 지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엔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및 특수학교에 총 1500만원을 지원했다. 저소득층 중학생 5명에 각 60만

원, 고등학생 5명에 120만원의 장학금과 특수학교 3개교에 200만원씩 기

자재 구입비를 전달했다.

난치병 어린이 치료 사업으로는 얼굴기형 어린이 치료에 쓰일 60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로부터 수술비와 재료비, 유지비 등 지원 요청을 받아 1인당 2000만원씩 총 3명을 지원했다. 정필훈(치의학73-79) 모교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가 이사장을 맡은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는 구순구개열 등 저소득 얼굴기형 환자의 무료 수술을 돕는 단체다. 위원회는 동문 모금과 관악회 사회공헌활동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현재까지 4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영향력을 미치지”고 강조했다. 노 동문은 의대에도 매일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기방 동문은 30년 전 기린전자를 설립했고 현재 기초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신의 재단을 동창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

김경숙 여사는 LG에서 33년간 근무한 남편 유성삼 동문이 현재 2년 가까이 암투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며 “남편의 후배를 돕기 위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국제관계의 전환기적 사건

수요특강

위성락(외교73-77)
전 러시아 대사

미·서방 대 러·중국 대결 속 한국, 외교정책 좌표 정해야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의 국제 관계 전반을 바꿔놓는 전환기적 사건입니다. 미국에 기울어지되 중국·러시아와도 그리 멀지 않은, 새로운 균형점과 리스크 헤징 대책을 세워야 해요.”

8월 24일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를 주제로 본회 수요특강 연단에 섰다. 위 동문은 옛 소련의 일부로서 같은 체제 안에 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의 역사를 조망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전제주의 진영 간의 대결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 외교가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했다.

“역대 정부는 미·중·러 사이에서 사안 별로 다소 편의적인 대처를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뚜렷한 정책적 좌표

나 지향점 없이 강한 압력이 들어오면 이를 들어주는 일이 흔했죠. 그러다 보니 미·중·러로 하여금 원하는 게 있으면 더 큰 압력을 가하도록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국가 정체성에 맞는 기준점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 관계의 균형점을 찾으면, 우리 정책의 일관성, 일체성,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커지고, 미·중·러 모두 한국에 대한 기대 수위를 조정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3시 방향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중국이 우리를 9시 방향으로 끌어당기려 한다고 가정할 때, 위 동문이 제시하는 한국형 좌표는 1시에서 1시 반.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1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1시 반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2시 정도의 행보를, 호주는 2시 반 정도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1시에서 1시 반을 유지하면 러시아나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서방측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띠는 나라로 비칠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러시아·중국과 협조할 영역을 찾아야 해요. 그렇게 일정한 협력 공간을 확보한 후 한반도의 평화 안정, 비핵화 등 국제사회의 공동 이해



에 해당하는 의제에 관해선 사안을 별개화 하여 미·러 대립이나 미·중 대립으로 인한 악영향을 가급적 덜 받도록, 나아가 미·러, 미·중이 대화와 협력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 동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크라이나의 친서방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동유럽의 구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 대거 나토에 가입하고 옛 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마저 가입이 논의되는 상황을 심각한 국가안보위협으로 판단했다는 것. 옛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국가들이 자유화, 민주화되는 파고 속에 체제안보 위협까지 더해지면서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패배시켜 중립국으로 묶어 두려

는 시도로 이번 사태를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러시아의 대서방 정책은 이견을 부추겨 분열시키는 방향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땀 미국과 유럽이 이견을 노출했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 간, 영국과 EU 간 공조가 강화됐습니다.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신청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러시아는 단합을 이룬 서방에 대처하고 전방위적인 국제제재를 견뎌야 하는 난국에 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한 ‘The West’와 러시아와 또 다른 전제주의 대국인 중국 등 나머지 국가들 ‘The Rest’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 리 없다. 미국의 동맹국이 자 세계 10위권 무역국 한국의 운신 공간은 더 좁아졌다. 한국이 서방측과 따로 가기는 어렵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시켰다.

사태 초기, 문재인 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제재 참여를 주저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이 강해지고 국제사회와 국

내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뒤늦게 제재에 참여했다. 제재에 참여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지만,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분류했다. 러시아와의 무역 투자에 제약이 커졌고 우리 경제와 기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생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다.

“최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노선은 안 그래도 북한·중국·러시아의 반작용을 초래하게 돼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졌으니 3국의 반발도 더 세질 수밖에 없죠. 수교 30여년 사상 최저점에 있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앞으로 더 멀어질 거예요. 중국은 △독립자주 △선린우호 △안정적인 공급망·산업망 수호 △내정 간섭 자제 △다자주의 견지 등 5대 원칙으로 압박하고 있고,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망언, 추태 운운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우크라이나 시대는 새 정부외교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본회는 이날 수요특강에 참석한 동문 전원에게 위 동문의 책 ‘한국 외교 업그레이드 제안’을 증정했다. 나경태기자

그린 위에서 나는 정... 참가비 모아 모교 수해 복구비로 기부

동문 나눔 골프대회

참가만 해도 선물 보따리
풍성한 경품 추첨 환호성
치대B팀 단체전 우승 쾌거
강민우 동문 72타 최고



8월 31일 레이카사이드CC에서 열린 본회 나눔 골프대회에 김종섭 회장을 비롯한 동문 153명이 참가했다.



왼쪽부터 남자부 메달리스트 강민우, 여자부 메달리스트 박명애, 디지털피아노 당첨 김성호 동문. 이 단체전 우승 치대B팀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본회 나눔 골프대회가 8월 31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CC에서 개최됐다. 김종섭 회장, 김인규 수석부회장 등 동문 153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치대B팀이 303타를 기록해 단체전 우승에 올랐다.

단체전 경기는 4명 한 팀으로 팀원 모두의 타수를 합산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순으로 순위를 매겼다. 2위는 314타를 기록한 ROTC팀이, 3위는 316타를 기록한 스포츠리더십최고위과정(ALPS) A팀이 차지했다.

개인전에선 친선팀, 대표팀을 통틀어 강민우(치의학03-07) 동문이 72타를 쳐 남자부 메달리스트에 올랐다. 여자부 메달리스트는 79타를 친 박명애(FIP 17기) 동문에게 돌아갔으며 수상자 전원에게 갈비세트가 부상으로 제공됐다.

이날 골프대회는 참가만 해도 선물 보따리가 푸짐했다. 모자, 우산, 계란, 티셔츠, 골프공,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세트, 뷰티선물세트 등 참가 선물만 쇼퍼백 두 개를 가득 채운 데다 미술작품, 구강세정기, 골프아카데미 이용권, 디지털 피아노와 기타까지 풍성한 경품 추첨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품 추첨 땀 누구의 이름이 불리든 상관없이 함께 환호하며 박수를 치는 등 당첨의 즐거움을 함께 누렸다.

황한술(체육교육99-03) 동문은 계란 180세트를 협찬한 데 이어 시상식과 경품 추첨을 하는 동안 송우엽(체육교육79-83) 동문 골프단장의 진행을 도왔고, 김영웅(체육교육09-14) 동문도 동

기 3명과 함께 당첨 동문들에게 경품을 전달하라 바쁘게 만찬장을 오갔다. 김 동문은 골프아카데미 이용권 5매를 협찬하기도 했다. 김종섭 본회 회장이 협찬하는 최고 경품 디지털 피아노는 김성호(재료공학05-13) 동문에게 돌아갔다.

김 회장은 “동창회 골프대회 사상 40팀으로 샷 건 경기를 한 건 처음인 것 같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나면 반갑고 유익하고 헤어질 때 뿌듯한, 보람을 느끼는 그런 동창회를 캐치프레이즈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역대 가장 비싼 참가비에도 여러 동문들이 적극 참가해 주셔서 대회를 치르고 남은 돈으로 수해를 입은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세정 총장은 허준이(물리02-07) 동문의 필즈상 수상 소식과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처음으로 20위권에 진입한 소식을 전하는 한편 수해이웃을 돕겠다는 김 회장의 말을 받아 “서울대가 최근 폭우로 수해를 많이 입었다”며 재치있게 도움을 요청했다. 협찬금은 전액 기부금 처리됐으며, 행사 후 잔액 4078만원을 모교 수해 복구 지원금으로 전달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까지 행사장을 지킨 참가 동문들은 그린 위에 핀 웃음꽃을 그대로 가지고 귀가했다.

친선팀 수상자(신데리오 적음)

수상내용	이름	
남성	메달리스트	강민우(치의학03-07)
	우승	박기출(공법87-92)
	준우승	조영식(수의학80-84)
	3위	이범준(수의학78-82)
	풍기리스트	전홍조(치의학99-05)
여성	메달리스트	박명애(FIP 17기)
	우승	박명애(FIP 17기)
	준우승	현소정(생명과학02-07)
	3위	배민성(FIP 17기)
풍기리스트	최경아(ALPS 17기)	
니어리스트	정현아(농가정82-86)	

단체전 수상팀(스트로크 플레이 방식)

수상내용	단과대학	이름
우승	치과대학 B팀	한원일(87-91)
		안강민(90-96)
		황재홍(90-94)
준우승	ROTC팀	김민우(03-07)
		정인조(금속공학71-75)
		박종만(농공82-86)
		이용석(계산통계82-86)
		송형석(경영91-95)
3위	ALPS A팀	김병근(17기)
		신기범(17기)
		윤백호(17기)



이경형 상임부회장(오른쪽)이 나눔 골프대회를 통해 모금한 4078만원을 모교 발전기금 채운 상임이사(왼쪽)에게 수해복구 지원금으로 전달했다.

귀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협찬금**
- 김종섭(사회사업66-70 본회 회장) 스페코삼익악기 그룹 회장 1000만원
 - 서병문(농공69-73 농생대동창회장) 로지스윌그룹 회장 500만원
 - 박정수(AIP 61기) 씨앤에프시스템 대표 300만원
 - 정규열(AMP 59기) 알트윈 회장 250만원
 - 박식순(농업교육77-81) KS그룹 회장·ROTC 중앙회 회장 150만원
 - 정팔모(AIP 17기) 코리아랜드컴파니 대표이사 회장 100만원
 - FIP동창회(미래융합기술 최고위 과정) 100만원
 - 임영우(농업교육78-82) 에니텍 대표 100만원
 - 변주선(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50만원
 - 이승우(법학75-79) 광동학원 이사장·라마다군산호텔 회장 50만원
 - 김정자(HPM 20기) 플랜지 이사 50만원
 - 방기석(SGS 14기 SGS 동창회장) 지비엠아이엔씨 대표이사 50만원
- 협찬품**
- 김종섭(사회사업66-70 본회 회장) 스페코삼익악기 그룹 회장· 전자 피아노 1대, 기타 3대
 - 강신호(의학46-52 본회 고문) 동아쏘시오홀딩스 명예회장 박카스 등 음료 400개
 - 손경석(법학57-61 본회 고문) CJ그룹 회장 비타민 세트 12세트
 - 조병우(섬유공학59-64) 유봉 회장 모자 170개
 - 성기학(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 티셔츠 160개
 - 이경수(약학66-70) 코스맥스 회장 화장품세트 160개
 - 권혁한(보대원75-77) 한국철관관리협회 회장 건강기능식품 40개
 - 윤철주(AMP 64기) 우리그룹 대표이사 회장 LED등 180개
 - 최병민(외교71-75) 깨끗한나라 회장 물티슈세트 180개
 - 백승열(농생물79-83) 대원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건강식품 180개
 - 임중호(치의학82-88) 치과원장 구강세정기 100개
 - 홍승석(경제85-90) 불빅 대표 모자 200개
 - 최성원(경영88-92) 광동제약 부회장 온더그린 음료 180개
 - 전영수(AFB 20기) 디카맥 대표이사 골프공 160세트
 - 강상석(FNP 6기) 유엔아이엔젤스 대표 초콜릿 1000개
 - 김시찬(SGS 16기) 서정대 기획처장 미술작품 1점
 - 한권일(BCP 23기) 한국베를 대표 뷰티선물 세트 180개
 - 황한술(체육교육99-03) 한솔루트윈 대표 계란 180세트
 - 김영웅(체육교육09-14) 엘파르케 대표 골프아카데미 이용권 5매
 - 서울대발전기금 소형우산 160개

신임 지부동창회장 인터뷰

기호에 딱맞춘 모임, 다양하게 자주 만들 것

안동지부 회장

이동찬 (ACPMP 8기) 삼광토건 대표

이동찬 삼광토건 대표가 지난 5월 안동지부 회장에 취임했다. 보기 드문 특별과정 출신 지부회장이다. 학부나 대학원에 비해 수학 기간은 짧지만, 동창회에 대한 열정은 누구 못지않게 뜨거웠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와 맞물려 취임 석 달 만에 7월엔 골프대회를, 8월엔 번개팅을 개최한 이 회장은 “등산, 골프, 문화탐방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동문 화합의 장을 더 자주, 더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동찬 안동지부 회장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안동지부 동창회원 수는 약 120명으로 서울 같은 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회원의 절대 다수가 국립안동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죠. 그의 학교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회원들 중엔 치과 의사나 학원 원장 등이 있습니다. 대학교수 동문이 2대에 걸쳐 회장을 맡으면 그때마다 한 번씩 학교 바깥의 동문 중에서 회장을 뽑곤 했는데, 교수 동문들이 지도와 연구의 시간을 좀 더 누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회장을 맡았습니다.”

사업하는 동문들에겐 서울대 인적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되는 것도 회장을 맡은 이유다. 사업과 관련하여 정

보를 교환하고 조언을 구하다 보면 자동으로 모임이 활성화된다고. 이 회장은 지부 내 주식 공부방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고 종목을 추천받아 투자한 결과 쓸쓸한 수익을 올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안동지부에 특별과정 출신 회원은 서너 명뿐이지만, 함께 해외로 산업 시찰을 다녀올 만큼 왕성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력을 모멘텀으로 학부와 대학원 출신 동문의 참여를 더욱 끌어올릴 생각이요. 대학에 계시는 동문과 학교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동문 모두한테 어우러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1년에 두 번 여는 전체 모임을 지속하는 한편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모임을 신설해 참여의 공간을 넓힐 계획이죠.”

이 회장은 젊은 동문들은 생업에 매여 있고 가정도 돌봐야 해서 한 번에 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 짬짬이 열리는 소규모 번개팅을 선호한다고 귀띔했다. 번개팅을 자주 여는 동시에 어르신 동문도 선호하는 등산대회를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

였다. 기호에 맞는 소규모 모임을 자주, 다양하게 만들어 그 안에서 친목이 강화되면 1960년대 학년부터 2000년대 학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큰 행사에도 자연스럽게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년에 수료하고 거의 바로 안동지부동창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안동자택에서 서울 관악캠퍼스까지 통학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2, 3시가 다 됐죠. 그래도 건축 관련 전문지식을 최고의 교수님들한테서 배울 수 있다는 데 만족하며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창회 발전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안동에 사시는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 회장이 대표로 재직 중인 삼광토건은 2002년 설립됐으며 삼광일렉트릭서티, 삼광산업, GCS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경북지역 대표 건설기업으로 꼽힌다.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며 부인은 안동시시의원을 지냈다. 좌우명은 난득호도(難得糊塗),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며 살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나경태 기자**



100대 기업 CEO 중 모교 출신 25명

**최고령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모교 공대서 12명·경영대 4명**

올해 기준 우리나라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25명이 모교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2022 대한민국 100대 기업 CEO’를 선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와 기업체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한 CEO들의 프로필을 발표했다. 여기에 본회가 동문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한 결과, 타대 학부 출신으로 모교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CEO가 2명, 특별과정을 졸업한 CEO가 16명으로 집계됐다.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증시에 상장한 1851개 사에 대해 올해 1분기 매출(IFRS 연결 기준)과 영업이익, 시가총액(7월 31일 종가 기준)을 점수로 환산해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100대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교 학부 출신 기준으로 최고령 CEO는 1947년생 성기학(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이었다. 100명 중 유일한 여성 CEO이자 2000년대 학번 동문 CEO로 1981년생 최수연(지구환경시스템00-05) 네이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70년대 학번 동문이 6명, 80년대 학번 동문이 19명이었고 90년대 학번 동문은 없었다.

100대 기업 동문 CEO 출신대학 (학부 기준)

학교	인원수
공대	12
경영대	4
사회대	3
인문대	3
법대	3

100대 기업 CEO 전체 출신대학 (학부 기준)

학교	인원수
서울대	25
고려대	17
연세대	8
성균관대	3
서강대	3
해위	20
기타	24

전공별로는 전자공학·화학공학·기계공학 등 모교 공대 학부 출신 동문 CEO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대 4명, 법대 3명, 사회대 3명, 인문대 3명이었다. 100대 기업 CEO 전체에서는 경영학도 출신 CEO가 27명, 공학도 출신 CEO가 17명이었는데, 모교 내에서는 공대가 100대 기업 CEO를 가장 많이 배출했다.

100대 기업 CEO 중 타대학 학부 출신으로 모교에서 특별과정을 졸업한 CEO도 16명이었다. AMP(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AFP(인문대 최고지도자 과정)가 3명, ALP(법대 최고지도자과

**이코노미스트 선정
‘2022 100대 기업’ 동문 CEO**

이름	학과·학번	직함
성기학	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
권영수	경영75-79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신학철	기계공학75-79	LG화학 부회장
조용일	영문77-81	현대해상 사장
김치형	화학공학79-83	효성티앤씨 대표
최성안	기계공학79-83	삼성엔지니어링 대표
장희구	국사79-86	코오롱인더 사장
김준	경영80-84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윤종원	경제80-84	IBK기업은행장
임병용	법학80-84	GS건설 대표
조성환	기계공학80-84	현대모비스 사장
구현모	산업공학81-85	KT 사장
황성우	전자공학81-85	삼성에스디에스 대표
윤종규	대학원(경영)82-85	KB금융그룹 회장
김대환	경제82-86	삼성카드 사장
김용범	경영82-86	메리츠화재 부회장
장덕현	전자공학82-86	삼성전기 사장
홍은택	동양사학82-86	카카오 대표
손태승	대학원(법학)83-86	우리금융그룹 회장
강호성	사법83-87	CJENM 대표
윤병석	화학공학84-88	SK가스 사장
김택진	전자공학85-89	엔씨소프트 대표
최은석	경영85-89	CJ제일제당 대표
박원철	화학공학87-91	SKC 사장
유영상	산업공학88-92	SK텔레콤 대표
강희석	공법89-94	이마트 대표
최수연	지구환경시스템공학00-05	네이버 대표

정) 2명, ASP(경제연구소 세계경제 최고전략과정), GLP(국제대학원 글로벌 최고경영 리더십 과정)가 각각 1명이었다. **박수진 기자**

한울회

9월 21일 세미나서 김인중·이수지 작가 특강



8월 31일 한울회 정기전 개막식에 참석한 70여 동문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모교 미술대학 여성동문회 ‘한울회’(회장 이부연)가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아트센터에서 제46회 정기전 개막식을 열었다.

이날 개막식엔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으며 권영걸(응용미술69-76) 미대동창회장, 유인수(회화66-70) 전 미대동창회장, 서명덕(응용미술71-75) 전 상명대 총장, 김성희(회화82-86) 모교 미대 학장에 이어 한울회 창립멤버 56학번 회화와 김지열·김재임·현숙자 동문과 57학번 회화와 권영숙·서영숙·이경자 동문 등이 축사를 했다.

이부연(응용미술71-75)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술이라는 전공은 평생 노력하는 전공이며 한울회 회원들은 이를 실천한 승리자”라고 하면서 “한울회를 통해 선후배간 작품과 학문의 장을 함께 논하고 소통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영걸 미대동창회장은 “밤낮없는

열정으로 오랫동안 흐트러짐 없이 예술의 자리를 지켜온 한울회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축사했고, 김성희 미대 학장은 “여성이 창작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끈기있게 작업을 이어온 한울회 회원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축사했다.

이번 정기전은 9월 5일까지 진행됐으며, 56학년부터 08학번까지 86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e북으로 제작된 도록을 통해 전시됐던 작품을 무료로 다시 볼 수 있다.

한울회는 또 9월 21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회 관악대상을 수상한 김인중(회화 59-63) 신부가 ‘동경(憧憬)’을 주제로, 올해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수지(서양화92-96) 작가가 ‘그림+책 작가 이수지입니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날 강연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문의: ahnsk730@naver.com

AMP동창회

친선 나눔 골프대회에 160여 명 참가



AMP동창회 친선 및 나눔 골프대회 참가 동문들이 대회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최고경영자과정(AMP)동창회(회장 윤철주)가 8월 28일 경기도 안산 아일랜드CC에서 제12회 친선 및 나눔 골프대회를 열었다. 18홀 샷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엔 160여 명의 동문이 참가했고 김승배(45기) META NET 부회장, 구분식(71기) 희성 부회장, 이정희(87기) 신진스틸 대표가 각각 시니어·일반·여성 부문의 메달리스트에 해당하는 챔피언에 올랐다.

시니어 부문 우승은 이경수(28기) 코스맥스그룹 회장이, 일반부 우승은 박정병(93기) 디알젠 대표가 차지했다. 롱기스트엔 김동환(93기) 유민에스티

대표가, 니어리스트엔 박세훈(67기) 엘티에스 회장이 각각 선정됐다.

윤철주(64기)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골프대회는 3년 만에 샷건 방식으로 치러져 참가 동문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잔치로 개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동문들께서 예년보다 많은 협찬금을 보내주시어 나눔 또한 어느 때보다 많이 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동문들의 참여와 성원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AMP동창회는 한편 10월 28일까지 제22회 ‘서울대AMP대상’의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추천은 각 기수별 1인으로 제한된다. 문의 및 접수: 02-884-2273

광고 협찬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총동창신문 광고 대행 외주 업체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동창회 자체적으로 광고를 수주합니다. ‘서울대총동창신문’은 모교 출신 중견 언론인 27명의 자문을 받아, 매월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광고 협찬 안내서를 참고하셔서, 기업 홍보 및 상품 광고를 위해 많은 이용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협찬 안내

- 회 지 명 : 서울대총동창신문
- 발행부수 : 종이신문 5만부
- 광고마감 : 매월 말일
- 발행일 : 매월 15일자
- 판형 : 베를리너판(20~28면)
- 연락처 및 이메일 : 02-886-2219, news@snu.or.kr
- 담당자 : 김남주 편집장

구분	규격	광고료
전면	299mm×432mm	600만원(맨 뒷면) 500만원(내지)
	299mm×216mm	300만원
1/4면	299mm×125mm (가로형)	200만원
	175mm×210mm (세로형)	

*파일 형식 PDF, JPG(고화질), AI, EPS 중 택일.

동문 서비스1: 제휴 호텔·리조트·펜션 등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와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제휴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이용 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해 연회비 또는 평생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한국교직원공제회·The-K호텔 앤 리조트

● 일반이용시 (단위: %)

구분	The-K호텔 앤 리조트				비고
	서울	경주	지리산	설악산	
객실	40	주중(50) / 주말(40)	50	50	성·비수기 구분 없음
식음료	10	-	-	-	식사 및 음료 할인
휘트니스	50	5000원 할인	30	-	서울호텔은 투숙시 할인
세미나	30	-	-	-	회의장 렌탈료 할인

구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비고
	객실	주중(60) / 주말·성수기(50)	
객실			
식음료	10		식사 및 음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중복 할인 불가)

● 휴스테이(롱스테이) 이용 시 (단위: 원/일)

구분	The-K호텔 앤 리조트			The-K 서드에이지
	설악(20평)	지리산(20평)	경주(일반실)	
3-7일	55000-90000	90000-130000	95000-120000	30000
8-30일	50000-85000	50000-90000	80000	

※ 호텔 및 롱스테이 이용 관련 유의사항
 · 평형별, 요일별, 숙박일자 및 예약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비·성수기 일자 및 요금 매년 변동
 ·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 대상기관 회원 및 임·직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회원우대증 등)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서울 02-571-8100, 경주 054-745-8100, 지리산 061-783-8100, 설악 033-639-8100, 제주 064-729-8100
 - 서드에이지: 입소 시 보증금의 5% 할인 (예약:055-530-8100)
 - 에다함상조: 가입 시 최종 8회분 납입 면제. 단, 전화 상담 가입에 한함 (예약:1566-6644)



노호텔 엠베서더 강남

엠베서더 호텔 그룹

구분	객실	식음료	연회	예약
노호텔 엠베서더 강남	10%	10%	5%	02-567-1101
엠베서더 서울 풀만	10%	10%	-	02-2275-1101
경원재 엠베서더 인천	10% 주중(일-목)	투숙시 10% Room svc 제외	미팅룸 대여 15%	032-729-1101
이비스스타일엠베서더강남	10%	10%	10%	02-3011-8888
이비스스타일엠베서더명동	10%	10%	10%	02-6020-8888
이비스 엠베서더 명동	10%	10%	10%	02-6361-8888
이비스 엠베서더 인사동	10%	-	10% 대여에 한함	02-6730-1101

※ 상기 요금은 정규요금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이며, 중복 할인은 불가함(객실은 홈페이지에서 code 입력 후 예약 가능, 식음 및 연회는 전화 사전예약 필수,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호텔 내 직영이 아닌 임대 업장 및 외부 서비스의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

라마다 군산 호텔

객실타입	정상요금	주중(일-목)	주말(금-토)	연휴/성수기
스탠다드 더블/트윈	220000	90000	110000	125000
스탠다드 패밀리트윈/디럭스더블	242000	95000	120000	135000
디럭스패밀리트윈/온돌	264000	105000	130000	145000
디럭스 스위트더블/패밀리 스위트	450000	180000	220000	250000
연휴/성수기 기간안내	2022년:1/1, 1/28-2/1, 6/3-6/5, 7/21-8/21, 9/8-9/11, 9/30-10/2, 10/7-10/9, 12/24-12/31			

※ 세금, 봉사료 포함가,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063-441-8000

하늘계곡연수펜션

구분	객실	식음료	세미나	비고
총동창회 할인을	40	10	30	-객실: 성·비수기 구분 없음 -세미나: 회의장 렌탈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043-653-2013, www.skyp.co.kr

고급 식당 할인 혜택

- **필경재 (한정식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02-445-2115 (서울 강남구 수서동 광평로 205)
- **슈타인도르프 (수제맥주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02-422-9000 (서울 송파구 오금로15길 11)
- **램스에비뉴 (양고기 음식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음료 제외)
 ※ 예약 및 문의: 02-303-8980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결혼정보업체 듀오 10% 할인

- 동문이 가입할 시 10%, 동문 가족은 5% 할인 적용
 ※ 문의: 1577-8333

동문 서비스2: 건강검진 협약병원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은 협약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최대 50%까지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해 연회비 또는 평생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10~30% 감면

서울대학교병원	02-2072-3333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02-2112-5500	건강검진 10% 우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88-3369(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2-870-3333(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국립암센터	031-920-1212	암검진 10% 우대
강남세브란스병원	1899-7588 ydmchc@yuhs.ac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1588-8668(내선1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	1577-9966(내선2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고려대학교안암병원	02-920-5106, 5491, 6677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대림성모병원	02-829-9357, 9359, 9317	건강검진 및 비급여진료 20% 우대
한국원자력의학원	02-970-1791-3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장례식장 15% 우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31-910-7027-8(검진) 031-910-7000(비급여)	건강검진 10% (1-2월 30%) 우대 비급여진료 10% (20만원 한도)
명지병원	031-810-6383	건강검진 20~30% 우대
제천 명지병원	043-640-8450/8451	비급여진료 10% 우대
인천사랑병원	032-457-2800	(재료대 및 약제비 제외)
중앙대학교병원	6299-2114	기본건강검진 20%, 치과 비급여진료 10%, 장례식장 안치료 및 빈소 10%(상조회 가입한 경우 5%)
CM병원	02-2635-8275 070-4698-7817	종합검진비 10%(1-3월 20%), 비급여진료 10%
아주대학교병원	031-219-4000	종합검진비 10%(1-3월 20%)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70-4665-9137	종합검진비 10%
화홍병원	031-8021-6947-8(검진) 031-8021-6958(비급여)	종합검진비 20% 비급여진료 10%

최대 50% 감면 (일반검진 25만원 / 종합검진 35만원 / 정밀검진 50만원)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메디플라워 헬스케어	02-3475-7100(내선1번)		
차용건진센터	삼성	1800-7750(내선1번)	일반검진 제외
	일산	031-782-8888	
	분당	031-780-5050	
	청담차용(프리미엄)	02-3015-5001	
한국의학연구소(KMI)	1599-7070	본원(강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한신메디피아	02-596-4565(내선2번), 3476-7760		

동문 서비스3: 경조 서비스

당해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동문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본인 부담)

화환·조화, 경하기·근조기

구분	근조기	경하기	조화·화환	영정바구니
서울	25000원	30000원	80000원 (전 지역 동일)	100000원 (전 지역 동일)
서울교교	30000원	38000원		
수도권	38000원	42000원		
경기외곽	42000원	45000원		
지방	48000원	48000원		
제주도	80000원	80000원		

● 신청_경조 서비스 신청

신청 및 문의: 전화 02-702-2233

● 입금_신청 후 비용 계좌로 입금

계좌번호는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배송_입금이 확인되면 3~4시간 안 배달

도서지역과 교통불편지역은 요금 및 소요시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원우대증을 제시하시면 우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 평생회비 또는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은 회원우대증을 모바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휴사 이용 시 본 우대증을 제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모바일 회원 우대증 발급방법

-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발급 화면으로 연결 또는 홈페이지 www.snu.or.kr 첫 화면 하단 「회원우대증」 배너 클릭 (회원가입 필요)
- *스마트폰에서 접속하시면 편리합니다.
-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가입을 원치 않으시면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우대증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 *문의: 총동창회 사무처 대표전화 02-702-2233 문자전용 1877-2039

【회원우대증 바로가기】



좋은 물건 싸게 사고, 공짜 여행도 가고

Mall SNUA 오픈

본회 온라인쇼핑몰 'Mall SNUA'가 8월 31일 오픈했다. 9월 8일 현재까지 삼성전자, LG 전자, 삼원가든, 차이797, 깨끗한나라, 삼익악기, 에스콰이어, 크로커다일 레이디, 올리비아 하슬러, 럭스 바이 샤프렌, 볼빅, SK매직, 유라, 닥터앤닥터스 등 가전, 외식, 위생, 악기, 패션, 커피, 건강식품 품목의 다양한 브랜드와 농생대동창회 우수 농식품 전문 쇼핑몰 '스누아몰'이 입점해 있다. 향후 더 많은 업체가 입점할 예정이다.

Mall SNUA는 모교 동문만을 위한 폐쇄형 쇼핑몰로 정가 대비 최대 80%까지 할인된 금액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상품 구입을 하려면 쇼핑몰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하고 멤버십 회원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회원가입 때 동문임이 확인되면 멤버십 회원이 아니어도 판매 물품을 살펴볼 수 있다.

Mall SNUA는 현재 다양한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멤버십 가입 없이 회원 가입만 해도 관악극회 정기공연 '위선자따르쭈프' 초대권을 1인당 2매씩 200명에게 선착순 증정하며, 멤버십 회원이 되면 CGV에매권을 1인당 2매씩 50명에게, 도미노피자 쿠폰을 100명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분한다. 올해 연말까지 쇼핑몰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자동으로 응모 대상이 된다.

누적 구매 금액대에 따라 자동 응모 및 무작위 추첨되는 경품 이벤트도 있다. 누적 구매 금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3명을 추첨해 베트남 휘닉스 골프리조트 3박 3일 4인 이용권을, 300만원 이상인 경우 1명을 추첨해 삼익 디지털피아노를, 200만원 이상인 경우 10명을 추첨해 단양CC 이용권 및 펜션숙박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10~12월 행사 안내

행사 문의: 02-702-2233

등산대회

집합일시: 10월 20일(목) 오전 8시
 집합장소: 2·9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산행지: 주왕산 절골 (경북 청송)
 참가비: 5만원(버스 대절비, 오찬, 기념품 제공)

10월 수요특강

일시: 10월 26일(수) 오전 7시 30분
 장소: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주제: 격변하는 시대의 한반도와 대북정책
 참가비: 무료(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10월 1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

조찬포럼

일시: 11월 4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시청 앞)
 강연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주제: 미정
 참가비: 5만원(조찬 및 도서 제공)

11월 수요특강

일시: 11월 23일(수) 오전 7시 30분
 장소: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및 주제: 미정
 참가비: 무료(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11월 1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

12월 수요특강

일시: 12월 28일(수) 낮 12시
 장소: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주제: 2023년도 경제 전망
 참가비: 무료(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12월 1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

제28대 총장예비후보자 이철수·유홍림·남익현·차상균 교수

(기호순)

10월 6일 정책평가로 3인 가려 이사회서 최종 후보 1인 선정

모교가 제28대 총장 예비후보자 4명을 확정했다.

모교 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 노정혜)는 9월 5일 제5차 회의 및 후보대상자 소견발표회를 열고 △이철수(법학78-82)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홍림(정치80-84) 정치외교학부 교수 △남익현(경영81-85) 경영학과 교수 △차상균(전기공학76-80)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이상 기호순)를 총장예비후보자로 선출했다.

앞서 8월 17일까지 진행된 총장 후보 모집에는 총장예비후보자 4명을 비롯해 조동성(경영67-71) 경영학과 명예교수, 이봉진(약학77-81) 제약학과 교수, 차국현(화학공학77-81) 화학생명공학부 교수, 유상임(요업공학78-82) 재료공학부 교수, 임도빈(사회교육79-83)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이봉주(사회복지81-85)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영(영문83-87)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호(계산통계84-88)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교수, 박태균(국사85-89)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등 13명이 지원했다. 13명은 자격요건 평가 등을 거쳐 총장 후보대상자로 확정됐고, 9월 5일 비공개 발표회에서 소견 발표를 진행했다.

총추위 위원 30명은 서류심사와 면접, 간담회, 소견발표, 발전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예비후보자 4명을 가렸다. 총추위 위원이 후보 대상자에 배정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예비후보자가 될 대상자 4명을 지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총추위 위원이 지지 후보의 유력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에 높은 점수를 주는 일을 방지했다.

총추위 산하 총장후보추진위원회가



1 기호 이철수(법학78-82)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평의원회 의장



2 유홍림(정치80-84)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사회과학대학장



3 남익현(경영81-85) 경영학과 교수 전 기획처장



4 차상균(전기공학76-80)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전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

학의 인사를 후보로 초빙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예비 후보자에 추가되지는 않았다. 총장후보추진위원회는 5차례 회의를 열고 학의 인사 3명을 초빙대상자 후보로 발굴해 초빙 절차를 진행했다. 삼성전자 상임고문을 지낸 권오현(전기공학71-75) SNU홀딩스 이사회 의장, 다트머스대 총장을 지낸 김 용(브라운대 82졸) 전 세계은행 총재, 예일대 최초 아시아인 학장을 지낸 천명우(연세대 85졸) 예일대 교수다.

이 중 초빙대상자 1명이 선정될 경우 총추위가 선정한 총장예비후보자 4명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예정이었다. 총장후보추진위원회가 이들 후보에 대해 8월 27일까지 초빙 활동을 진행한 결과 전원이 초빙 제안을 고사했다.

이번에 선출된 총장예비후보자 4명 중 2명은 70년대 후반 학번, 2명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이 중 남익현 교수만 총장선거 출마 경험이 있다. 남익현 교수는 27대 총장 첫 번째 선거 및 재선거에 출마해 두 차례 예비후보자에 든 적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학내 경력을 내세우며 교육·연구·행정과 법인화 이후 숙원인 재정 자립 등에 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철수 교수는 노동법 학자이자 모교 기획처장, 평의원회 의장,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익힌 대화와 소통 능력, 리더십을 강조했다. ‘자치의 복원, 담대한 도약’ 기치 아래 대외협력과 재정확충, 조직문화 개선에 총장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국가전략사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유홍림 교수는 사회과학대 학장과 법인화준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국가미래전략원 창립과정을 주도했다. 서울대를 ‘자유와 신뢰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교내의 법령과 제반 규정을 개혁하고, 단과대학별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출연금을 현재 연 5500억원에서 7200억원으로 증액하고, SNU 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수익사업 구조를 전문화하겠다고 내세웠다.

남익현 교수는 기획처장과 경영대학장, 발전기금 상임이사를 역임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역량을 쌓았다고 자부했다. 집중연구를 위한 유연 학기제와 연구·강의 중심 선택학기제 도입, 인권교육 강화 및 사회봉사활동 확대 등 인재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모교활동을 도입하는 등 전략적인 캠페인을 통한

모교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차상균 교수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경력과 모교 빅데이터연구원과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설립을 이끈 이력을 내세웠다. ‘대학을 자유롭게 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과도한 규제와 비현실적인 규정을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 면에서는 정부 출연금 의존도를 줄이되 모교 발전기금에 대한 정부의 매칭 발전기금 출연,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에 투자하는 SNU혁신펀드 조성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아이디어를 냈다.

총장 예비후보자 4명은 9월 19일 연건캠퍼스, 9월 21일 관악캠퍼스에서 공개 소견발표회를 열고 공약을 발표한다. 10월 6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정책평가에서 교직원과 학생 평가단의 투표로 3명의 총장 후보자가 가려진다. 총추위는 10월 11일 정책평가 상위 득점자 3명을 이사회에 총장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정책평가단에는 교원 390명, 직원 55명, 부설학교 교원 4명 등 교직원 총 449명과 재학생이 참여한다. 교직원 정책평가단은 정책평가 당일 오전에 무작위로 선정된다. 학생은 정책평가단에 사전등록한 인원내 한해 온라인으로 정책발표를 시청하고 모바일로 정책평가에 참가한다. 평가 결과는 교원 정책평가

단의 9.5%로 환산되어 반영된다.

총추위가 공개한 교원 정책평가단의 대학별 배정 인원에서 예비후보자들의 소속 대학별 인원을 살펴보면 법전문 14명, 사회대 27명, 경영대 13명, 공대 45명 및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3명이다. 평가단 배정 인원이 많은 의과대학(45명)과 자연과학대학(41명), 인문대학(33명)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아래 표 참조)

이사회는 총추위가 추천한 총장후보자 3명을 정책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평가하고, 11월경 최종후보 1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후보자는 교육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신임 총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신임 총장은 2023년 2월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박수진기자

교원 정책평가단 대학별 배정 인원

대학(원)	배정인원
인문대학	33
사회과학대학	27
자연과학대학	41
간호대학	8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13
공과대학(공학전문대학원)	45
농업생명과학대학(국제농업기술대학원)	26
미술대학	10
사범대학	21
생활과학대학	9
수의과대학	11
약학대학	11
음악대학	11
의과대학	45
자유전공학부	2
보건대학원	8
행정대학원	8
환경대학원	8
국제대학원	8
치의학대학원	20
법학전문대학원	14
융합과학기술대학원	8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3
계	390명

고윤석, 강중현, 박민식·박금옥, 서정선 동문 모교 발전공로상

모교는 제15회 발전공로상 수상자라고 고윤석(물리47-54) 전 모교 물리전문학부 명예교수, 강중현(조선항공공학52입) 삼진글로벌넷 회장, 박민식(수의학65-69 전 UCLA 의대 교수)·박금옥(체육교육63-67) 동문 부부, 서정선(의학70-76) 마크로젠 회장을 선정했다.

9월 6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수여식을 열었다.

고윤석 물리전문학부 명예교수는 국내 1세대 핵물리학자로서 사재로 보산 핵물리학상을 제정해 연구자들을 독려하는 등 국내 물리학적 발전과 인재 양성에 헌신했다. 캠퍼스 통합을 통해 모교 학부교육과정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도서와 연구 시설 보강에도 힘썼다. 지난해 12월 모교에 ‘고윤석·박중숙 장학기금’ 10억원을 출연한 뒤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대리수상자로 참석한 고윤석 동문의 장녀 고은희 덕성여대 명예교수는 “아버지께서 정말 건강하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뭔가 서두르시



고윤석 모교 명예교수



강중현 삼진글로벌넷 회장



박민식 전 UCLA 의대 교수·박금옥 동문 부부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니, 가진 것들을 정리하시고 서울대에도 기부를 하시더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96세로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도 지하철을 타고 걸어 다니시면서 일생 근검절약하셨다. 그렇게 일생을 모아서 다음 세대에 당신이 젊었을 때 가지셨던 꿈과 소망이 전해지고 기억되길 바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중현 동문은 50여 개국에 한국 전통 음식을 수출해 한식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국내 최초로 냉동 물류의 전자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유통 혁신을 이뤘다. 노후한 모교 문화관 리모델링 기금으로 37여억원을 쾌척하고, 농생

대와 인문대 등에 학술·연구·장학기금 등 총 77여억원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강 동문은 수여식에서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기업 이익을 환원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항상 고민해왔다”며 “서울대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 인연이 각별한 학교로,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문화관 건립에 힘을 보태고, 여러 분야의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민식·박금옥 동문 부부는 2008년 ‘박민식 박금옥 기금’ 1억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모교에 수년간 70만 달

러를 기부했다. 2020년 모교 발전기금 미주재단에 수의대를 위한 기부금 30만 달러를 추가 기탁해 누적 기부액이 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수의대의 미국 수의사회 인증과 동물병원 신축에 큰 도움이 됐다.

박 동문 부부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헌신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자세를 늘 강조하면서도 주변 지인들 모르게 철저한 익명으로 모교와 문화계에 거액을 기부했다. 2018년부터는 모교에 기부한 선한 인재 장학금을 통해 생활이 나아진 후배 학생들의 감사 편지를 받고 가난한 학생에게 식비와 주

거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학생 지원 사업에 큰 관심을 뒀다. 박민식 동문은 교수직 은퇴 후 미국 남가주에서 각종 문화, 장학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 중이다.

서정선 동문은 1997년 서울대 유전체학연구소를 모태로 마크로젠을 창업해 2000년 한국 바이오벤처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마크로젠 주식 10만주(100억원 상당)를 모교 발전기금에 기증하고 학부 신입생들에게 개인용 노트북 등을 지급했다. 마크로젠의 핵심사업인 생명공학 분야의 뿌리가 바로 대학 연구소에서 다져졌고, 그 결실을 대학에 환원해 새로운 의학교육의 틀을 만들겠다는 뜻이었다. 40여년간 연구에 매진해 180편 이상의 SCI급 논문을 발표해 1만 회 이상 피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네이처와 네이처 자매지에 17편의 논문을 발표한 국제적인 기초의학자이기도 하다.

모교는 품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고 공로를 표창하고자 2008년부터 발전공로상을 제정해 수여하고 있다.

“얼굴 보니 너무 좋네요” 3년 만에 열린 대면 졸업식



8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체육관에서 3년 만에 대면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학사 959명, 석사 1041명, 박사 700명이 본회 신입회원이 됐다.

— 김중섭 회장 졸업식 축사(요지) —

“받은 복 어떻게 돌려줄지 고민하길”

오늘 서울대를 졸업하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로 축하를 할까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복(福)이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복에 대한 설명이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문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은 사람, 복 없는 사람’ ‘그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4만 서울대 선배 동문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기여한 업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으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DNA를 받고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 했고 그 결과로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께 효도하고 주위의 모든 가족, 친구, 선생님으로부터 칭찬 받고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부러워하고 진학의 목표로 삼는 서울대 재학생을 거쳐 이제 동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복 받은 서울대 졸업장을 받는 여러분들은 사회에 보답할 책무가 주어집니다. 주위로부터, 사회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이 순간부터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동안 부모님, 친구,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이 많은 복을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회에 돌려드릴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뜻을 새겨 서울대 동문 창회를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닌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졸업생이 되면 사회로부터 받는 특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신용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크레딧을 사회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유리한 출발점에 선다는

서울대인은 혼자 똑똑하긴 한데 남과 어울려 함께하는 마음가짐이 약하다고들 합니다. 이 말에 전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을 낮추면서 남들보다 2%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이 될 것을 확실합니다.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

필즈상 허준이 동문 축사 화제 민주화열사 7명 명예졸업

모교에서 3년 만에 대면 졸업식이 열렸다. 모교는 지난 8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체육관에서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959명, 석사 1041명, 박사 700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로써 총 2700명의 신입 동문이 본회에 입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졸업식이 취소됐고, 2022년 2월까지 네 번의 졸업식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해당 기간의 졸업생들을 초청했다. 모교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기존 졸업생이 참석했다.

졸업 시즌에도 썰렁했던 체육관은 졸업생과 축하객으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발전기금이 마련한 포토존 등 이벤트가 곳곳에서 열렸다. 기념사진을 찍고, 학사모가 날아오르는 예년의 풍경도 되찾았다. 3년 만의 학사 행렬로 학위수여식이 시작됐다.

오세정 총장은 졸업생에게 “코로나19의 생존자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설계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류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등 오랜 세월 존재해왔던 문제들을 코로나

19가 더욱 첨예하게 드러내 줬다”며 “인류사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세계사의 주역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라”고 주문했다.

김중섭 회장은 “여러 면에서 복 받은 서울대 졸업장을 받는 여러분들은 사회에 보답할 책무가 주어진다. 주위로부터, 사회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이 순간부터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며 “부모님, 친구,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이 많은 복을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회에 돌려드릴지를 고민하라”고 당부했다.

모교는 이날 필즈상을 수상한 수학자 허준이(물리02-07) 프린스턴대 교수를 축사 연사로 초청함과 동시에 제32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수여했다. “변덕스러운 우연이, 지쳐버린 타인이, 자신이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 나는 커서 어떻게 살까, 오래된 질문을 오늘부터의 매일이 답해준다”, “취업, 창업, 결혼,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의 그럴듯한 일일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정신 팔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허 동문의 축사는 졸업식 직후 언론을 통해 알려져 명문으로 회자됐다.

한편 모교는 민주화 운동 당시 사망 등의 사유로 제적되어 졸업하지 못한 7

명의 민주화 열사를 명예졸업자로 선정하고 학위수여식 중 유가족에게 명예졸업증을 전달했다. 김태훈(경제78입), 김학묵(사회78입), 박혜정(국문83입), 송종호(서문87입), 이동수(원예83입), 이진래(제약79입), 황정하(토목공학80입) 동문이다. 모교 관악캠퍼스 ‘민주화의 길’에 김태훈, 황정하, 이동수, 박혜정 열사의 추모비가 있다. 모교는 2001년 박종철 열사를 시작으로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공헌을 기리며 총 58명의 졸업생에게 명예졸업증을 수여했다.

각 단과대학별 총장상과 총동창회장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박수진기자

총동창회장상·총장상 수상자 명단

	총동창회장상	총장상
인문대	유은우	김지영
사회대	이수범	박성호
자연대	김다솔	복진호
간호대	김민지	안희영
경영대	강지원	이찬석
공대	고두용	박서홍
농생대	임기범	박선주
미대	김동희	손효진
사범대	권지현	남궁다운
생활대	김진원	이정환
음대	이선아	정세이
의과대학	-	박정흠
자유전공	손진아	설형욱

이유재·이경무·장경섭 교수, 모교 석좌교수에 선정

모교는 9월 1일 이유재(경영 77-82) 경영학과 교수, 이경무(제어계측공학80-84)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장경섭(사회 80-84) 사회학과 교수 등 3명을 석좌교수로 선정했다.



이유재 이경무 장경섭

모교는 전임교원 중 노벨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학술상을 수상하거나,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며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교원 등을 석좌교수로 임용하고 있다. 모교 석좌교수 제도에 따라 학술연구 활동수당 지급 및 교원 책임시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초빙석좌교수를 포함한 모교 석좌교수는 현재 총 14명이다.

이유재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스탠퍼드대 경영학박사를 취득하고 미시간대 교수로 정년보장을 받고 재직하다 1993

년 모교에 부임했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서울서비스지수, 공공기관만족지수 등을 개발해 고객가치경영의 새 지평을 열었다. 경영학자 최초로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받았고, 경영대 최초의 석좌교수로서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해 총피인용수 6만7000여 회에 달한다.

이경무 교수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시각지능(컴퓨터 비전)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딥러닝을 이용한 영상복원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있으며

구글 스칼라에 기록된 총피인용수는 2만8000회를 웃돈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전기전자컴퓨터 전 분야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학술지인 ‘IEEE 패턴 분석 및 기계 지능’의 한국인 최초 편집장을 맡고 있다.

장경섭 교수는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과 동아시아 현실에 관한 독창적 이론과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이론, 비교사회체제, 시민권학, 정치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얻었다. 압축근대성, 개발시민권 등의 학설이 핵심 국제학술지들의 특집 주제로 다뤄지거나 국내외 대학에서 대형 연구사업의 중심 이론으로 채택됐다. 압축근대성에 대한 영문 신간은 중국어, 프랑스어, 아랍어 번역판으로도 출간 예정이다.



걸어서 ‘샤’ 정문 통과하자

모교 정문 광장이 1년여 공사 끝에 완성됐다. 4차선 도로가 지나던 ‘샤’ 모양 구조물 주변은 보행로로 변했다. 바닥에 서울대 문장과 월계수잎을 새기고 화강암 의자를 설치해 포토존도 마련했다. 서 현(건축82-86) 건축학과 교수의 디자인이다. 학위수여식이 열린 8월 29일 새단장된 정문 광장에서 졸업생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약대 학장에 이상국, 국제대학원장에 김현철 교수

모교는 8월 19일 약학대학 학장에 이상국(제약81-85) 제약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8월 30일에는 국제대학원 원장에 김현철(경영81-85) 국제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이상국 교수는 모교 약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 시카고캠퍼스에서 천연물·생약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여 년 동안 천연물로부터 새로운 약리활성

물질의 발굴 및 이를 통한 의약품 개발 연구를 수행해왔다.

김현철 교수는 모교 경영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고야 상과 대학과 츠크바에 교수를 거쳐 2002년 모교에 부임해 일본연구소 소장을 맡아왔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신남방특위 위원장 등을 지냈다.

3학기 9월 학기제 도입한다...땀 올린 모교 중장기 발전계획

부문별 중장기 발전계획 ①교육

기숙대학 세워 연대의식 높이고 다전공제 넘어 무전공제 추진

최근 '서울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 발간됐다. 발전계획은 1장 미래사회의 변화와 서울대학교의 역할, 2장 부문별 발전계획, 3장 전략 및 실행과제 추진계획 등으로 나뉘며 ①문명사적 전환기의 서울대학교 교육 혁신 ②국가와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연구 ③총체적 웰니스를 지향하는 학생지원·복지 ④질적 국제화와 지식기반형 사회공헌 ⑤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멀티캠퍼스 구축 ⑥다양한 재원확보를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 ⑦시너지를 창출하는 성숙한 대학운영체제 확립 등 7개 부문별 발전계획을 담고 있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7차례에 걸쳐 부문별 모교 중장기 발전계획을 소개한다.

발전계획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 미중 패권전쟁 심화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글로벌 가치사슬의 격변과 기후위기, 인구구조의 변화 등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2040년까지 세계 20위권 싱가포르대, 홍콩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세정 총장의 요청에 따라 2021년 4월, 204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모임이 조직됐고 비전, 교육, 연구, 학생지원·복지, 국제화·사회공헌, 멀티캠퍼스, 재정, 대학운영체제의 8개 부서가 구성됐으며, 교원·학생·직원·외부 전문가 등 총 85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100회가 넘는 분과별 모임과 20여 차

리의 각 분과위원장 및 본부 처·국장들과의 논의를 거쳐 완성된 발전계획은 새로운 시각에서 모교의 역할을 조명해 보고자 다양한 외부인사들의 의견을 들은 간담회와 외부 컨설팅도 병행했다. 그 결과 '국가와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는 지식공동체'를 2040년 모교의 비전으로도 출했다.

'문명사적 전환기의 서울대학교 교육 혁신'에선 3학기·9월 학기제가 제시됐다. 겨울 방학을 없애고 9-11월, 12-2월, 3-5월로 나눠 각 3개월 12주씩 정규 학기를 진행하며 6-8월 여름 방학 때 국제하게 강좌를 수강하거나 교환학생, 인턴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자는 안이다. 이를 통해 9월에 개학하는 대다수 유럽·미주 대학들과 더 원활한 교류가 가능할 전망이다.

발전계획은 기숙대학(Residential College 이하 RC)을 활용해 6개월간 다양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면 9월에 정규 학기를 시작해도 신입생 선발 전형 일정은 현행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RC가 "학과·학부, 단대·대학원 간 장벽을 넘어 학부생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자유롭게 교류하는, 상호 이해와 연대의식을 높이고 사과의 범위를 넓히는 전인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 시대 때 확대된 비대면 교육과 이로 인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고립화·개인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도 RC를 강조했다.

다만 "의무적 공동생활을 강제하는 RC는 학생들의 저항이 클 것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학생 선호도를 고려할 것과 신입생이 참여하는 '새내기 대학' 형식의 RC를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발전계획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을 위해 전공 간 벽을 허물고 현행 자기설계전공 제도를 개선해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썼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위 제도의 정립을 목표로 선발 때 세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에 따라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현행 다전공제를

전폭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무(無)전공 제를, 장기적으로 6년제 멀티트랙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했다. 먼저 큰 방향을 설정한 다음엔 "교수의 소속을 학과나 학부가 아닌 단대, 대학본부 차원으로 바꾸는 등 단계별 혁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전공 간 경계를 허무는 것이 입시, 대학조직, 전공 설계는 물론 교수 충원과 소속의 자율화 등 현실적 문제와 맞물려 있어 치밀한 대책 없이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발전계획은 다전공제의 개선을 위해 부·복수전공 학과나 학부서도 전공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와 지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립돼야 한다고 짚으면서, 현재 교무처가 추진 중인 '아카데믹 어드바이저(Academic Advisor 이하 AA)'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생 개인의 학업 지도, 진로 조언, 심리상담 등 멘토 역할을 담당하는 AA는 반드시 교수일 필요는 없으며 자격을 충분히 갖춘 박사과정 학생이나 박사수료생, 강의 조교(Teaching Assistant)를 활용하는 방안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발전계획은 △이공계 재학생은 주전공 이수 부담이 커 다른 학과(부)의 수업을 듣기 어려운 점 △인문사회계

재학생에게 경쟁이 치열한 학과(부)의 복수·부전공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점 △수요가 몰리는 일부 학과(부)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교육의 질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점 등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식·기술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삶의 재전환을 통한 인생 다모작 경향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 또한 일회성 교육으로 그칠 게 아니라 귀한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계획은 스탠퍼드대의 개방형 순환 모델을 예로 들면서 재학생과 귀환생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고등교육 학습 패턴의 다양화, 생애 전반의 학습 제공, 다양한 학습자를 통한 포용적 교육 시스템 확보, 대학 안팎의 광범위한 참여로 인한 교육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 장관을 맡은 이재영(영문83-87) 모교 영문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서울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대학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교육"이라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대학보다 앞서야 한다는 의무감, 선제적·주도적으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치열하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나경태 기자

글로벌사회공헌단, 인니서 직업교육사업



글로벌사회공헌단이 인도네시아 마타람대와 현지 역량강화교육 목적의 MOU를 체결했다.

김종섭 회장 8억원 후원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단장 여명석, 이하 공헌단)이 이번 동계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연계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한다. 김종섭(사회사업66-70) 본회 회장이 8억원을 후원한 이번 사업은 향후 5년간 인도네시아 롬복섬 취업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롬복은 2018년부터 공헌단이 활동해온 지역이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파견 활동이 잠정 중단된 2020년 이후 재개되는 첫 번째 파견인 만큼 의미가 크다.

공헌단은 8월 21~27일 사전답사를 진행하고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롬복관광대학, 롬복 직업학교(BLK) 등 다양한 곳을 방문했다. 인도네시아총동창회배도운(언어79-83) 회장과 함께 동창회원 7명도 만났다.

8월 23일에는 인도네시아 마타람대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여명석 공헌단 단장과 인도네시아 마타람대 밤방 하리 쿠스모 총장이 참석해 '롬복 일자리 창출 연계 사회공헌 사업'을 위한 3S(Samick-SNU Sustainability)(가칭) 센터 설립 및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공헌단은 이번 롬복 파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 개발 협력을 경험하고 세계시민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명석 단장은 "추후 진행될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롬복섬 취업 소외계층의 빈곤 탈출 및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국 학생 모두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이타적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은 대학 내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허브조직으로 2013년 2월 창설됐다. 사회적 책임성과 혁신적 전문성을 토대로 사회공헌 교육과 국내외 사회공헌 실천을 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도서관이 1700만원짜리 책 구입한 까닭은



중 앙 도서관(관장 장덕진) 관정관 1층 관정마루에서 도서관 소장 도서인 '시스티나 예배당 벽화집(La Cappella Sistina, 2016)'을 활용한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 11월 30일까지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중앙도서관이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이탈리아 미술도서 전문 출판사 '스크립타 마네안트'사가 펴낸 '시스티나 예배당 벽화집'을 입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정가 1만 9500유로, 1999책 한정판으로 출간한 이 책은 시스티나 예배당의 유명

한 벽화들을 10m 높이에서 촬영해 1:1 비율로 확대한 고해상도 이미지 27만장을 엮었다.

2021년 동양학과 '벽화기법' 수강생들이 이 책을 강의교재로 쓰기 위해 중앙도서관에 구입 신청을 했고, 약 2개월이 걸려 고유번호 1566번이 찍힌 책이 도착했다. 구입가 1700만원으로 도서관 소장 도서 중 권당 최고가 책이다. 이 책으로 공부한 수강생들은 프레스코 벽화를 현대적 기법으로 모사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이번 전시에 선보였다. 도서관 측은 "벽대신 알루미늄 패널 위에 프레스코 벽화를 그려내 이동 전시가 가능해졌다"며 "벽화의 세계를 새롭게 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려라 취업문

모교 경력개발센터가 주관하고 본회가 후원한 '2022 하반기 서울대학교 채용박람회'가 9월 6-7일 이틀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채용박람회엔 국내외 1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9월 6일 오전 모교 오세정 총장(앞줄 가운데)과 본회 김종섭 회장(앞줄 왼쪽)이 참가 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모교 단신

오세정 총장 주한미국대사 접견

오세정 모교 총장은 8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차담을 가졌다. 오 총장이 "항후에도 양국 간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자 골드버그 대사는 "양국 간 교류를 바탕으로 한 우수 연구성과 창출 및 혁신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후 골드버그 대사는 모교 국가미래전략원에서 특강을 열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및 김병연 국가미래전략원장과 대담회를 가졌다.

모교 병원, 코로나19 백서 발간

모교 병원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 4개월간 코로나19 현장 대응 경험을 정리한 '서울대학교병원 코로나19 백서'를 최근 발간했다. 백서에는 해당 기간 모교 병원의 코로나19 대응 타임라인을 비롯해 병원의 방역 대응 체계와 진료 및 지원, 정부협력 및 대외활동, 연구 및 과제, 교직원 수기 등을 담았다. 특히 자체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경증 확진 환자를 일반병동에서 치료하는 등 모교 병원이 선도적으로 시도한 사례도 실었다. 백서는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에서 볼 수 있다.

소프트로봇엔, 서비스로봇 대회

모교 인간중심 소프트로봇기술 연구센터(센터장 조규진 교수)는 8월 26~27일 강릉에서 제1회 소프트로봇 미래서비스 아이디어 대회를 개최했다. '10년 후 가장 필요한 소프트로봇을 구상하고, 10년 뒤 기술을 기준으로 공학적 구현 방법을 제시하라'는 문제를 놓고 모교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7개 대학 팀이 경쟁했다. 고희화와 저출산 등을 주제로 경연 끝에 '스마트 소프트 이불로봇'을 제시한 모교 팀이 우승했다.

“서울치대 100주년은 대한민국 치의학 100년을 돌아보는 기회”

안창영 (치의학72-78)

치과원장, 전 치대·치대원동창회장

100주년 성공 기원 1억 기부

더 많은 동문이 뜻 모아주길

안창영 치과원장이 최근 모교 발전기금에 1억원을 기부했다. 오는 10월 모교 치의학대학원 100주년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뜻에서다. 100주년 기념사업의 꽃은 연건캠퍼스 치의학대학원 본관 개·증축. 50여년 동안 모교 치대인이 수학한 곳이기도 각별한 추억이 묻어 있긴 하지만, 1969년 세워진 건물이라 많이 낡았다. 창경궁이 인접해 있어 층고를 올리지 못하는 대신 지하로 공간을 넓혀 첨단 교육 및 연구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5년 전 치대·치대원동창회장에 취임한 그를 처음 인터뷰했을 때에도 치대 100주년 사업이 주된 이슈였다. 서울치대 100주년 사업의 선발투수인 셈이다. 9월 1일 서울 대치동 치과원에서 안창영 동문을 다시 만났다.

“우리 동창회 임원들이 매년 100만원씩 20년 넘게 제 돈 들어가면서 동창회 사업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애정을 갖고 헌신하는 동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좀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동문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 모교 치대 200주년을 맞이

할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살아생전에 모교 치대 100주년을 맞이하고, 이를 기념할 수 있다는 건 커다란 행운이 아닐 수 없죠. 마지막 기념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치대 동문이 수만 명인데 나 한 사람 빠진다고 무슨 일 있겠어?’ 하는 식으로 관망하지 마시고, 작은 정성이나마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부를 결심하고 실천하기까지 조심스러웠던 건 경제적 부담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애써준 선배, 후배들에게 불편을 끼치면 어찌나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돈 있다고 위세 떠는 것처럼 보일까 봐, 자기 홍보를 위한 기부로 오해받을까 봐 동창회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기부 약정을 했다고. 모교의 은혜에 대한 보답과 자녀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보기가 되고 싶은 바람도 작용했다.

5년 전 치대 100주년 사업의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인 만큼 오는 10월 기념식과 학술대회에 관해서도 막힘없이 설명을 이어갔다.

“권호범(치의학89-93) 대학원장, 한성희(치의학79-85) 동창회장, 김용호(치의학85-89) 학술담당 부회장 등을 중심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월 15, 16일 이틀에 걸쳐 첫째 날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열고, 둘째 날엔 치의학대학원 본관 및 교육동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기념식은 서울치대 100년 역사가 곧 대한민국 치의학 100년이었음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하고 공표하는 의미를 띠죠. 축하공연엔 인기 밴드 ‘자우림’을 섭외하는 등 그간의 서울치대 이미지를 넘어 과격적인 출연진으로 구성했고요. 학술대회는 지난 100년 동안 치의학이 얼마나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조망하는 동시에 치의학의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연사들로 모였습니다. 특히 박노희(치의학62-68) UCLA 석좌교수는 UCLA 치대 건물에 초상화가 걸릴 만큼 대단한 분이죠.”

주말 휴일 이틀을 오롯이 동창회 행사에 써야 하는 만큼 내실에 신경을 썼다는 게 안 동문의 설명.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국내 치과의사에게 매년 10점의 보수교육을 받게 하는데, 모교 치대 100주년 학술대회에 참가하면 4점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학술포스터 경연대회를 열어, 치과의사로서 자신의 연구업적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경연 대회는 현대 치의학의 방향을 제한된 프로그램에 담기 어려워 짜낸 묘안이자, 참가자로 하여금 치과계에 자신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모교 치대 100주년의 구체적인 연혁과 고증을 ‘특설 포스터 월(wall)’로 꾸며 상세히 전시합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치과 치료 기구부터 분자생물학, 유전자 조작 기법까지 동원되는 최신 기초 치의학 분야까지 망라할 예정이에요. 문호를 개방해 참가비를 내면, 타대학 출신 치과의사도 학술대회 및 포스터 경연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설 포스터 월은 참가비 없이 누구나 와서 관람할 수 있고요. 치의학의 발전을 한눈에 살필 수 있어 일반인에게도 유익한 볼거리가 될 겁니다.”

모교 치대·치대원동창회는 매 학기 재학생 4명에게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고유의 멘토링 프로그램 ‘DCO-SNU’와 회원 대상 단체 상해보험을 운영한다. 국내외 의료봉사과 자선 골프대회를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동창회보 및 뉴스레터, 동창회 달력 등을 제작·배포한다. 개원의 최초로 대한치학회장을 역임한 안 동문은 1999년 열린치과봉사회를 창립해 6개 진료소에서 봉사 중이며, UN 산하 치과 관련 비정부 기구 ADI(Academy Of Dentistry International) 한국지부의 초대 회장을 맡은 바 있다. 대한 골유착 임플란트 학회 회장, 대한 턱관절 교합 학회 회장, 대한스포츠 치의학회 회장, 대한 디지털 치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유니세프, 한국세생명 복지재단 등에도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나경태 기자**

“21세기에 걸맞은 문화예술 보여주겠다”

선승혜 (미학89-93)

대전시립미술관장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겸직교수

대전미술관 역대 최연소 관장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장 역임

지금 대전시립미술관에 가면 문화의 미래를 만날 수 있다. 과학과 예술의 융합 전시인 2022 대전비엔날레가 ‘미래 도시’를 주제로 10월 30일까지 펼쳐진다. 캔버스에 그려진 회화가 아닌 모니터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디지털아트가 주를 이룬다.

8월 25일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만난 선승혜 관장은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정체성을 담아 2018년부터 대전비엔날레를 열고 있다”며 “21세기는 디지털세계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실천하는, 재미있는 시대라고 정의해 본다. 과학기술로 문화예술이 만개하고, 문화예술이 과학기술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인간, 자연, 과학기술이 문화와 외교로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답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오늘 오전에 KAIST 이광형 총장님이 오셔서 전시를 관람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우리는 19세기~20세기 사상가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21세기에 걸맞은 문화예술을 세상에 내놓겠다고, 우리 시대 문화예술계의 거목이

셨던 이어령·오병남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지요. 엄격한 어른이 떠난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예술의 최첨단 예술을 기획하고 있는 선승혜 동문은 2018년 대전시립미술관에 최연소 관장으로 부임해, 지역 공공미술관의 여성 관장 시대 문을 연 주역이다.

2020년 연임에 성공, 4년을 이끌어오며 130억원 규모의 열린 수장고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코로나 기간 착공을 시작해 오는 10월 중순 완공을 앞두고 있다. 백남준 작가의 초대형 작품 ‘프랙탈 거북선’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이 열린 수장고에 보존하면서 기대를 모은다. 수장고에 들어가지만, 개방형이라 일반 전시실처럼 관람할 수 있다. 미술관 로비가 작아 그동안 ‘프랙탈 거북선’의 날개 부분이 제외된 상태로 전시됐는데, 수장고로 옮겨지면서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 전시된 원형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 됐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이어 국립미술관 가운데 처음으로 선보이는 열린 수장고입니다. 최근 영화 ‘한산’의 인기로 ‘프랙탈 거북선’을 보



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데, 완벽한 형태로 복원하기 위해 대전엑스포 당시 이 작품의 조립을 담당했던 테크니션도 영입했고, 고장 난 부품도 어렵게 구해 문제없이 작동되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다다익선’과 함께 손꼽히는 백남준 작가의 대형작품이니 대전 오시면 꼭 관람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선 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전문 큐레이터 1세대다.

도쿄대에서 미술사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 클리블랜드미술관에서 국제적 감각도 익혔다.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시절 민간 최초의 문화전문가로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장으로 발탁되는 독특한 이력도 갖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외교부에 근무하며 K-POP을 비롯해 한류, 미술, 음악, 영화, 스포츠 등 문화외교를 총괄했다. 2018 세계경제포럼 코리아 평창 나이트(Korea Pyeongchang Night)를 비롯해, 외교부 주최 투르크문화축제, 노르딕문화축제, 한·일 공감콘서트 등을 총감독했다.

“전통미술을 주로 연구하고 보여주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서울시립미술관을 거쳐 최첨단 과학 예술을 하는 지점까지 왔어요. 그 과정에서 국제적인 미술관의 큐레이터와 외교부의 문화외교의 최첨단에서 일도 했고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세상이 많이



수장고로 옮겨진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

변할 거고 세계를 무대로 해야 할 거다. 나는 내가 평생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딱 이 말대로 제 삶이 흘러온 것 같아요. 미술관장 임기가 거의 끝나 갑니다. 디지털 시대, 아름다움은,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문화예술로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일에 정진하려 합니다.”

선 동문은 동창신문 인터뷰 연락을 받았을 때, 뭔가 그 다음으로 가는 전조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지금까지 축적된 커리어를 인정해주는 느낌이랄까, 앞으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는 신호 같았어요. 대전·충남 지부 동문들 면면을 보니 서로 함께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동창 모임에도 열심히 나가도록 노력할게요.”

선 동문은 현재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겸직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로 ‘게임과 예술 : 환상의 전조’(공저), ‘인공지능 : 유리창은 햇살을 잃고’(공저) 등이 있다. 미디어아트로 유명한 신승백·김용훈 작가를 발굴했다.

김남주 기자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동행

소중한 나눔의 씨앗이 관악의 꿈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나눔의 정신을 소중히 되새기며 정성으로 마련한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장학빌딩 얼굴부조, 이름각인	건강검진비 지원	장학금 명칭 부여, 기업승계·세무금융 컨설팅	상조서비스 지원	감사패, 기념물품 발송	역사연구기록관 기재	주요행사 초청

예우내용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장학 빌딩	얼굴부조	✓				
	이름각인	✓	✓	✓	✓	
장학금 명칭 부여		✓	✓	✓		
건강검진비 지원		✓	✓			
기업승계 컨설팅 제공		✓	✓			
세무금융컨설팅 제공		✓	✓	✓		
상조서비스 지원		✓	✓	✓	✓	
감사패		✓	✓	✓	✓	
기념물품 발송		✓	✓	✓	✓	✓
역사연구기록관 기재		✓	✓	✓	✓	✓
주요행사 초청		✓	✓	✓	✓	✓

※ 기부 및 예우 프로그램은 기부금 납입 기준에 의해 적용됩니다.

장학금 명칭부여	• 5천만원 이상 기부자 의사를 반영한 장학생 선정 가능
건강검진비 지원	• 건강검진 예약 및 비용 지원 10억원 이상 : 평생 5억원 이상 : 5회 1억원 이상 : 1회 • 지원병원 : 서울대병원 본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국립암센터, 차병원 청담병원
기업승계 컨설팅 제공	• 1억원 이상 1:1 무료 자산관리 플랫폼 컨설팅 제공
세무금융 컨설팅 제공	• 5천만원 이상 자산설계,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관련 컨설팅 제공
상조서비스 지원	• 10억원 이상 : 장례차량, 관, 수의, 장례도우미, 묘비건립, 자서전 발간, 근조기, 화환, 영정바구니, 일회용품 등 • 1억원 이상 : 근조기, 화환, 영정바구니, 현수막, 일회용품, 묘비건립 등 • 1천만원 이상 : 근조기, 화환, 영정바구니, 현수막, 일회용품 등

※ (재)관악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출연해주시 기부금에 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참여 안내

- 무통장 입금**
 - * 장학금 기부금 : 신한 140-006-909438 / 우리 1005-202-771270 / 농협 069-01-272391
 - * 사회공헌사업 기부금 : 신한 140-013-437837
 - 예금주 : 재단법인 관악회 (※ 송금인란에 기부자 성명, 입학연도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 * 은행계좌, 신용카드 모두 가능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 팩스, 이메일, 문자로 보내주세요.)



재단법인 관악회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940동 415호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T 02-879-8211 / 8288
F 02-703-0755 | M 010-4212-0755 (문자수신전용) | E scholarship@snu.ac.kr H www.snu.ac.kr

나의 취미

“수질오염 주범? 낚시인만큼 호수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김범철(해양73-77) 강원대 명예교수

호수생태·수질관리 권위자
낚시 외 진짜 오염원 규명해

“물고기를 잡는 낚시인은 수(水) 생태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물고기와 호수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부 명예교수는 삶의 많은 시간을 호숫가에서 보냈다. 그는 모교 졸업 후 카이스트에서 생물공학 석사학위,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호수 생태학과 수질 관리를 연구해온 호수과학자다. 8월 26일 여의도한 카페에서 만났을 때도 국회의원들과 녹조 현상의 독소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60년 경력의 낚시인임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월간 ‘낚시춘추’에 연재하는 ‘호수의 과학’ 칼럼을 읽고서였다.

“어린 시절부터 낚시를 좋아했어요. 고향이 충북 제천인데 긴 대나무에 줄을 매고 의림지라는 저수지에서 낚시를 했죠. 박사논문 쓸 때도, 고3 때도 2학기를 빼면 낚시를 쉬어본 적 없어요. 친구들은 대학 포기했냐고 했지만 일요일 오전에 몇 시간 하고 오면 머리가 맑아 지더군요. 대학 땀 낚시 단적인 동기와 여름방학에 낚시대랑 텐트 들고 전국으로 낚시를 다니다 29박 30일 만에 돌아 오기도 했죠.”

대학 시절 소양댐에서 3박 낚시를 즐기다가 거대한 댐과 호수에 매료됐다. “해양학과 호수학 이론이 거의 같다. 한국에서 가장 큰 호수를 연구해보야겠다 싶었다”고 했다. 소양댐의 플랑크톤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후 40여년간 소양호를 장기 관찰했다. 그 덕에 90년대에 가두리 양식장이 수질 오염의 주원인을 밝히고 10년에 걸쳐 가두리양식장 철거를 이끌기도 했다.

낚시인들이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을 땐 분석 자료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해왔다. 그가 찾아낸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낚시인들이 뿌리는 떡밥이 아니었다. 김 동문은 “녹조만 생기면 낚시 금지가 대책으로 나오는데, 역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동물의 배설물 등에 포함된 인 성분이 물에 많아지면 인을 먹고 자라는 식물플랑크톤이 늘어나 ‘부영양화’ 대표 현상인 녹조가 생긴다.

“여러 호수에 대해 계산해 본 바 수질 오염 원인에서 낚시의 비중은 대개 1%를 넘기지 않았습니니다. 그보다 가축 분뇨와 농지 퇴비, 도시 인근에선 인 제거 처리를 하지 않은 하수가 더 큰 문제였죠. 하루에 낚시 미끼 300g을 사용할 때 낚시로 1인당 약 0.7g의 인을 배출하는데, 소 한 마리가 낚시인 51명, 돼지 한 마리는 17명에 해당하는 인을 배설합니다. 소똥 한 숟가락에 든 인이 떡밥 한 봉지 속 인과 맞먹고, 소 100마리 축사에서 나오는 인이 낚시인 1000명의 미끼만큼 영향을 주는데 낚시만 단속하는 건 약간 전시적인 성격이 있죠. 낚시가 금지



된 신갈 저수지도 정작 바로 옆의 하수처리장에서 인 제거를 하면서부터 수질이 크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김 동문은 낚시인도 호수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한다. 환경전문지가 아닌 낚시잡지에 호수학 칼럼을 연재하는 이유다. “오늘날 물가에 가는 사람은 낚시꾼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빛이 어떤 색인지, 어떤 고기가 사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죠. 담수의 생태에 대한 저의 지식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식으로 전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최근 책 ‘호수환경생태학’을 냈을 땐 낚시인들이 나서서 홍보했다. 유튜브 ‘김범철 교수의 호수의 과학’ 채널을 통해서도 호수 지식을 나누고 있다.

방문 연구자 ‘낚시 천국’ 미국에 머문 것도 낚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는 계기가 됐다. 낚시 면허제가 있는 미국은 주별로 낚시 규정을

두고 시설과 어종 관리를 철저히 한다. 약 20달러 남짓한 면허와 함께 주는 규정집엔 낚시 도구와 보호대상 어종, 어종별로 포획이 허용되는 크기와 마릿수 등이 적혀 있어 여기면 환경 전문 경찰이 큰 벌금을 매긴다. 김 동문도 낚시 면허를 구입해 주말마다 낚시를 다녔다.

“미네소타 주에선 낚시 바늘을 한 개만 쓸 수 있어요. 규정집을 읽으면 어류 보호를 위한 세심한 노력이 느껴지죠. 낚시인은 돈을 내는 대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선거철엔 낚시인 연합에서 후보자들에게 호수 물고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낚시인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설문지를 돌리고 선거 운동도 하더라고요.” 국내엔 낚시면허제가 번번이 도입이 무산돼 아쉽다.

장소와 미끼에 따라 다양한 낚시를 섭렵해 보고 붕어 낚시에 정착했다. “낚시는 손맛이지만, 붕어는 ‘찌맛’에 낚는다”고 했다. “붕어 낚시는 찌를 달고 하는데, 긴 기다림 끝에 찌올림이 주는 설렘이 말도 못해요. 찌를 바라보노라면 지루하지도 않죠. 불교의 참선과 비슷하단 사람도 있어요. 참선은 화두를 하나 정해 그것 외에 모든 생각을 끊어 버리잖아요. 찌낚시도 어떻게 보면 고기 외에 다른 생각을 끊고 몰입하는 것이고요.” 잡은 고기는 모두 놓아준다.

가을은 낚시대가 길어지는 계절이다. 호수물이 수온에 따라 상하층으로 나뉘는 성층현상이 해소돼 물고기도 봄보다 깊은 곳에 머물기 때문이다. 제일 가까운 출조 일정을 묻자 그가 배서시 웃었다. “내일 모레요. 학과 교수 한 분의 초등학생 아들이 낚시 해보고 싶다고 조른다네요.” 며칠 후 추천 근교 낚시터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미국에선 물 환경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swimmable, fishable water’를 내세웁니다. 물놀이 하고, 물고기 잡는 걸 인간의 중요한 권리로 보장하는 거죠. 어린 아이에겐 자연을 배워야 한다면서 요금도 받지 않고 낚시를 가르치고 권장해요. 우리 낚시인도 존중받으면서 자연보호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박수진 기자

화제의 동문 **유튜버**

‘굴러라 굴러라’ 김지우 (사회20입) 재학생

소수의 목소리 널리 퍼뜨리고 싶어요

영화나 드라마 속 장애인은 늘 슬픈 사연을 갖고 있거나 장애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일을 해내거나 장애를 연기하는 비장애인일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도 정말 그렇게 ‘납작한’ 삶을 살고 있을까? 재학생 김지우(사회20입) 씨는 걸출기식으로 다뤄지는 장애인의 모습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5년 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구독자는 5만 여명. 어릴 적 머리를 다쳐 뇌병변 장애인이 됐지만, 영상을 제작하고 책을 쓰고 방송에 출연하는 일 모두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진 않았다고 말한다. 김지우 학생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추천 영상을 꼽는다면.
“장기 프로젝트 ‘이달의 휠체어’는 휠체어를 시선을 ‘받아온’ 것에서 시선을 ‘잡아끄는’ 것으로 전복시켜 휠체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콘텐츠다. 꽃가마, 썰매, 워딩 체어 등으로 휠체어를 꾸미는데, 단순히 예쁘게 보이는 것을 넘어 나름의 메시지를 던지는 영상들이 다. 장애 여성 친목 영상 ‘디-시스터즈’는 청각장애 유튜버 하개울과, 시각장애 유튜버 우령이 함께 출연해 장애와 여성의 교차성을 다루면서도 재밌는 일상을 보여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어울리면 무엇이 필요할까.
“장애인 인권 관련 활동과 학내에서 배리어프리 환경 보장을 위한 일을 하면서, 아직도 많은 일이 ‘덤’으로 여겨진다는 인상을 받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임에도 비장애인이 ‘더’ 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살아가며 겪어야 할 수많은 요청과 제공의 순간들이 모두 일방향이 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뭔가 ‘더’ 해야 한다는 인식 보단 아직 ‘덜’ 된 것을 찾고, 메워나가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경태 기자

“딱 1년 휴학했다. 휴학 동안 모델도 연극배우도 해 봤고, 수필집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름이다’도 출판했다. 제대로 쉬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 싶은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는데.
“원래 기계를 좋아하고 영상 만드는 것을 좋아해 ‘그냥’ 시작한 것이 지금의 유튜브 채널이다. 이를 계기로 영상 제작뿐 아니라 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다. 특별한 계획 없이 기회가 왔을 때, 하고 싶을 때 주저하지 않고 뛰어 들었다. 다양한 사람들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널리 퍼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나.
“잠을 충분히 자려고 노력하고,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최소한의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엘씨앤와이즈의 가문승계 노하우 (7) 미국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라”

미국 주식시장은 수 천개 이상의 국제적 회사들이 상장돼 있는 가장 오래된 주식시장 중에 하나다. 미국 내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회사들은 미국 주식시장이 가지는 깊이와 넓이, 폭넓은 자금조달환경, 선진기술과 투자유치 기회, 그리고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규정 때문에 미국에 상장하고자 한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50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큰 규모의 회사들을 비롯해 시가총액 1천만달러 정도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회사들도 상장돼 있으며 상장된 회사들은 의료, 원자재, 부동산, 필수소비재, 임의 소비재, 유틸리티, 에너지, 산업재, 소비자 서비스, 금융과 기술을 포함한 11가지 광범위한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 시가총액 합계의 약 42%를 차지한다. 이는 그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약 4배 정도 된다.

미국 주식시장이 가지는 규모에 의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광범위한 분산투자의 효과가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연재순서

1. 가문승계와 패밀리오피스
2. 차세대 교육의 중요성 1 (금융교육 등)
3. 차세대 교육의 중요성 2 (비금융교육)
4. 세대간 가치관 차이 이해
5. 다음 세대의 가업 참여 (지배구조, 절차, 위원회)
6.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7. 미국 주식시장
8. 승계전략 수립 및 공식화
9. 가족헌법
10. 독립적 조직 개발

흥미롭게도 투자자들은 자국의 주식시장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를 ‘home-bias’ 라고도 한다.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약 2%에 불과함에도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100% 투자하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home-bias’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더 높은 이윤을 취하며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둘째, 한곳에만 투자하면서 그곳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에 완전히 노출되는 것이다. 해외 분산투자는 투자성과를 향상 시키면서 국가적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분산투자와 더불어 투자자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함과 동시에 미국 달러에 투자하게 되어 환율 측면에서도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로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질수록 강세를 띠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IMF 사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사례를 보면 달러의 가치는 원화대비 급격히 상승했었다. 가장 최근의 예시를 들면 2022년의 주가가 15~25% 하락하고 있을 때, 미국 달러는 다른 통화에 비해 15% 이상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미국 주식시장에 달러로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달러가치의 상승으로 일정부분 손실에 대한 방어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의 나라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더욱 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10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약 10%를 기록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성과를 내어왔다.

박상우(MBA 06입) 엘씨앤와이즈 한국 대표

화제의 책

MZ세대가 바라는 공정한 보상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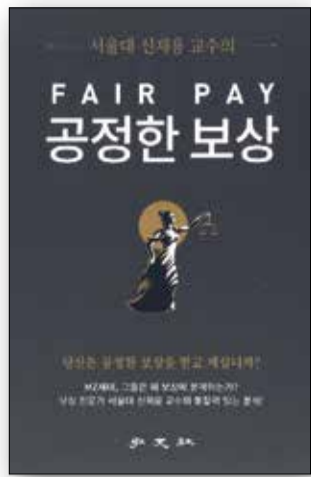
EXHIBITIONS

요즘 기업들은 MZ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이해하려는 공부가 한창이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해가 가지 않아'라는 수준에서 그칠 수는 없다. 어릴 때부터 경쟁과 토너먼트에 익숙한 그들은 능력주의와 공정을 최대의 가치로 여긴다.

약 1700만명으로 국내 인구의 34%이자 주요 대기업 임직원의 50%가량을 차지하는 MZ세대는 최고 학력을 쌓고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로 정의된다. 세계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체험한 능력 있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은 MZ세대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고 확보하는 과정에 몰두하게 했다.

책 '공정한 보상'은 MZ세대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한 보상

신재용(경영90-94) 모교 경영학과 교수 홍문사

모교에서 성과평가와 보상을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하고 강의해온 신재용 동문은 이 책을 통해 보상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MZ세대가 요구하는 '공정한 보상'을 마련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며 보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유도한다.

성과평가와 보상구조는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책을 찾기 어려웠다. 신재용 동문의 '공정한 보상'은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쓰인 책이다.

새로운 세대가 쏘아 올린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요구는 곧 다시 잠잠해질 일시적 화제거리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점이다.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정량적 기준에서 정성적 기준으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집단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이동하는 평가 및 보상방식의 변화 역시 시대적인 소명이고 개별 기업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신 동문은 "MZ세대의 공정성은 개개인이 대학 입학, 기업 입사의 경쟁 과정에서 노력과 타고난 재능을 적절히 투입하여 합격과 선발이라는 대가로 보상받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형성된 개인 차원의 공정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MZ세대 직원들은 개인의 공헌에 대

한 고려없이 모든 직원이 일률적인 지급률을 적용받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회사는 개인의 성과평가와 인센티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직 성과급의 경우 관련 경영실적과 예상 금액을 주기적으로 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MZ세대의 요구를 이해하고 제도를 정렬하는 것부터 권한 부여를 통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까지, 이론적인 논의를 토대로 실무 보상제도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은 이 책은 보상 이슈에 대한 세대갈등 해소와 공정한 보상제도 마련에 관심 있는 다양한 독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 동문은 모교 졸업 후 위스콘신대 매디슨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일리노이대 아바나샴페인 회계학과 조교수로 4년간 일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회계학회에서 발간하는 관리회계분과 학술지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5개의 집과 30개의 문 - 상상하는 작가 안규철

10월 2일까지 능동 서울상상나라



일상 사물을 소재로 활용해온 개념미술가 안규철(조소73-77) 동문이 어린이를 위해 일

상적인 '문'을 주제로 체험형 전시를 꾸렸다. 전시장에 여러 한옥식 문과 커다란 집을 설치해 작가가 상상한 세계를 체험하게 했다. 방문 2주 전부터 홈페이지에서 입장 예약. 문의: www.seoulchildrensmuseum.org

류성실 동문 '불타는 사랑의 노래'

10월 2일까지 청담동 아틀리에에르메스



지난해 역대 최연소로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받은 류성실(조소18졸) 동문의 수상 기념전. 류 동문은 'BJ 체리장', '이대왕' 등의 캐릭터를 앞세워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동시대 이슈와 전통적 형태 등을 날카롭게 재구성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발표해 왔다. 과격적인 형식과 메시지로 미술계의 문법을 깬다는 평을 듣는다. 문의: 02-3015-3248

BOOKS

국한문 혼용과 국력 신장

이병선(국어교육51-55) 부산대 명예교수



이 책에서는 해방 이후 한글 전용으로 한자 교육을 소홀히 해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국어의 70%가 한자어

이고, 그 중심을 이루는 말도 한자어인데 어려운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해, 관념어나 학술어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글은 표음 문자임에 비해, 한자는 표의문자로서 문장을 빨리 읽을 수 있고, 뜻의 전달이 정확하여 국민의 독서의 양을 늘리고 사고력을 도우는 것으로, 책에서는 이러한 문자생활의 효율성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한자 문화권 나라들과의 소통을 위해 한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시대, 인간에게 묻다

이흥규(정치72-76) KAIST 명예교수



디지털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한편 무지와 편견을 강화시키는 시대다. 이성, 지혜, 텍스트보다 감

각, 감정, 이미지가 넘쳐나며, 자기중심적 예고와 욕망은 강화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과연 율음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던져진 숙제다. 더구나 미래는 인공지능의 시대다. 인간보다 뛰어난 지식정보역량을 갖출 기계 앞에서 인간은 이제 어떻게 율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해 가야 한다. 이 책은 개인에게는 자기 성찰, 사회에는 민주적 이성, 미래에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이라는 숙제를 던진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온 분들

이상우(행정57-61) 신아시아연구소이사장



이상우 동문이 '개인 선비' 들을 기리며, 뜻을 세워 나라의 앞길을 여는 데 헌신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특별한

것은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김옥균, 서재필, 이승만, 박정희 등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뿐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창의성과 성실함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사회발전에도 기여했던 기업인과 학자, 언론인들을 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사회발전의 근본인 지성과 교육의 힘을 보여준 이한빈, 김호걸, 윤덕선, 과학과 기술로 선진공업국의 발판을 만들어 준 이현순, 공병우, 최형섭, 언론의 계몽자적 역할을 한 김성진, 남시욱, 김재순 등 200여명의 발자취를 되짚어갔다.

일생 최대의 행복

윤백중(AIP 4기) 삼화 P&S 고문



11권의 수필집을 펴낸 중견작가 윤백중 동문의 기행수필. 중국, 러시아, 멕시코 등 여행지에서 만나는 유적과 역사에 대

해 해박한 지식과 자료의 탄탄함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마치 독자가 그 자리에서 있는 착각을 느낄 정도로 생생한 묘사가 일품이다. 경관 등에 치우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정황, 인간관계 등을 해박한 식견과 경륜으로 재해석한다.

오경자 평론가는 "유려한 문장 덕에 그 많은 정보들이 재미있게 빨려 들어가는 흡인력을 갖고 있다"며 "경제인의 안목이란 저력이 깊이 있는 기행수필의 진수를 엮어냈다"고 평했다.

한밤달문명 국사

고준환(법학61-65) 경기대 명예교수



역사 유튜브 방송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고준환 동문이 그동안 연구한 불교와 역사적 지식을 총망라해 자신만의 시

각으로 문명의 시작에서부터 남북 분단까지 국내외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했다. 매우 크다는 의미의 '한'에 밝은 땅을 의미하는 '밤달'의 합성어인 '한밤달'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한배달과 한민족 등으로 전용돼왔다. 굴곡진 근현대 일제와 분단을 거치며 식민사학과 역사 조작으로 얼룩진 역사의 자주성을 되찾겠다는 일념이 책에 고스란히 담겼다. 자주사학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주변국에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고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실험

조성익(건축93-97) 홍익대 교수



삶의 문제를 건축으로 해결하고자 한 건축가의 치열한 고민을 담았다. 2021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일반주거부문 대

상을 수상하고, MZ세대가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코리빙하우스 '맹그로브 송인'을 설계한 건축가 조 동문은 혼자 있고 싶어 하면서도 타인과 어울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순된 심리를 파고들었다. 어떻게 하면 이웃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모여 사는 집을 만들 수 있을까? 잘 짜인 설계도처럼 촘촘하고 섬세한 저자의 글은 평생 '집'이란 화두에서 멀어질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 '주거'와 '공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제국의 암살자들: 김구 암살 공작의 전말

윤대원(국사78-82) 전 규장각 책임연구원



상하이에서 항저우, 전장을 거쳐 창사에 이르기까지, 이봉창·윤봉길 의거로 시작해 한국특무대 독립군을 결성하기

까지, 일제의 집요했던 암살 시도를 뚫고 임시정부를 재건해 굳건히 나아간 1930년대 김구의 임시정부 이야기.

책은 1929년부터 1938년까지 10년간 김구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중국 내 독립운동의 흐름 속에서, 일제와 밀정들이 집요하게 시도했던 세 차례 '김구 암살 공작'을 다룬다. 그러면서 당시 상하이 정국의 변화와 이에 대한 임시정부의 대응, 김구와 임시정부의 관계, 김구의 독자 세력화 등을 함께 살펴본다.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

최성우(물리82-86) 과학평론가



10가지 과학기술의 주요 정책 이슈들, 과거 역대 정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흐름과 변화, 성공과 실패 사례, 앞으로

의 전망과 과제 등을 살펴본 책. 그동안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최 동문은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큰 그림에 대한 개략과 함께 세부 정책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고찰과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성과가 컸고 성공적이었던 분야들은 그 요인을 잘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부진하거나 실패로 돌아갔던 것들은 그 원인 등을 철저히 고찰하고 반성함으로써 실패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고 강조한다.

CONCERTS

이순재 동문 출연 연극 '아트'

9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동송동 예스24 스테이지

오랜 시간 함께한 세 친구의 우정에 그림 한 점이 균열을 낸다. 속사포 대사에 빨려들고 정신없이 웃다 보면 어느새 우정의 복잡다층한 구조를 들여다보게 되는 블랙코미디. 이순재(철학54-58·사진) 동문과 백일섭·노주현 등 원로배우 캐스팅이 화제가 됐다. 문의: 02-3672-0900



오페라 갈라 '베스트 베르디'

10월 13일 대전 만년동 대전예술의전당



'라 트라비아타', '나부토', '리골레토' 등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대표작에 나오는 주요 아리아와 합창곡을 발췌해 연주한다. 류명우(기악90-98 대전시립교향악단 전임지휘자·사진) 동문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바리톤 김광현(성악03-09) 동문 등 성악가와 대규모 합창단이 함께한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대전 개최 기념 공연이다. 문의: 1544-1556

동정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인사, 수상, 행사, 결혼 등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5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신문에 게재됩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이메일 news@snu.ac.kr 전화 02-886-2219 팩스 02-886-2218

인사

최동섭(법학55-60 전 건설부 장관) 7월 1일 학교법인 태양학원(경인여대) 이사장에 취임.

권재일(언어72-76 모교 명예교수) 8월 8일 한글학회 신임 이사장에 선임.

이우일(기계공학 72-76 모교 명예교수) 9월 1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내정.

곽수근(경영73-77 모교 명예교수) 8월 24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민간위원에 위촉.

김종석(경제74-78 한국유족주립대 교수) 8월 24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위촉.

이재희(영어교육 74-78 경인교대 명예교수) 8월 28일 학교법인 학제학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IGSE) 6대 총장에 취임.

설근태(행정87-90) 9월 18일 경주에서 거행되는 신라대제(新羅大祭)에 헌관(獻官)으로 선임.

황주호(원자핵공학 75-82 전 경희대 교수) 8월 22일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에 취임.

이의현(AIP 20기 대일특수강 대표) 8월 23일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제25대 이사장으로 선출.

나성린(무역76-81 전 국회의원) 9월 2일 신용정보협회 제5대 협회장으로 선임.

이인호(경제76-80 모교 명예교수) 9월 1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내정.

정명섭(토목공학 76-80 전 대구도시공사 사장) 9월 1일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내정.

이철수(법학78-82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월 24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민간위원에 위촉.

장인경(조소78-82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장) 8월 24일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본부 부위원장으로서 선임.

곽재선(AMP 60기 KG그룹 회장) 9월 1일 쌍용자동차 회장에 취임.

석동현(법학79-83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최근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

이관섭(경영80-84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 8월 21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 임명.

김용범(경제81-85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최근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 오픈리서치(HOR) 대표이사에 선임.

박홍근(건축81-85 모교 건축학과 교수) 8월 18일 HDC현대산업개발 시공혁신 단장에 위촉.

김동환(기계설계 82-86 서울과학기술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8월 22일 대한기계학회 제68대 회장으로 선출.

이세영(독문82-89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8월 24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민간위원에 위촉.

진준권(미학82-86 전 동양대 교수) 8월 2일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로 임용.

한기정(공법82-86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명.

박중신(의학83-89 모교 병원 산부인과 교수) 9월 1일 한국 의학교육학회 회장에 취임.

이현주(사회복지 83-8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월 24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민간위원에 위촉.

홍석륜(물리84-88 세종대 물리전문학부 교수) 최근 제30대 한국물리학회 회장에 선출.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며, 기초과학 학회 협의체 회장직도 함께 수행할 예정.

김태현(경영85-89 예금보험공사 사장) 9월 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

나주범(경영86-90 전 기재부 재정혁신국장) 8월 8일 교육부 신임 차관보에 임명.

최영삼(중문86-90 외교부 대변인) 9월 5일 외교부 차관보에 임명.

이원석(정치87-91 대검찰청 차장검사) 8월 18일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

최형준(물리88-92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 최근 아시아태평양물리학회(AAPS) 회장으로 선출.

장대익(대학원94-97 모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9월 1일 가천대 창업대학 초대 학장으로 초빙.

허은영(자원공학 83-87 모교 공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최근 삼성전자 사외이사에 내정.

최진영(심리83-87 모교 심리학과 교수) 9월 1일 한국심리학회 제51대 회장에 취임.

정호석(경제85-89 전 한국은행 기획협력국장) 8월 17일 한국투자공사(KIC) 투자관리부 부장(CRO)에 임명.

이호준(경제86-90 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에 취임.

유명희(영문86-90 모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최근 삼성전자 사외이사에 내정.

김정각(경제87-91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8월 30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선임.

강도현(외교88-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8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승진.

류광준(정치89-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8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승진.

김은혜(AFP 10기 전 국회의원) 8월 21일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임명.

유창수(한대원95-97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대외협력 경영고문) 최근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에 취임.

이진준(경영95-01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전임교수) 2023년 개관 예정인 카이스트미술관 초대 관장에 선임.

박문정(응용화학 96-00 포스텍 화학과 교수) 8월 31일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 3년간 1억 5000만원 지원하는 신진 과학자(응용 부문)에 선정.

김철용(행정54-58 건국대 명예교수) 8월 26일 대한변호사 협회가 수여하는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에 선정.

남풍현(국문55-60 단국대 명예교수) 9월 16일 제67회 대한민국학술원상(인문학 부문) 수상.

류근일(정치56입 전 조선일보 주필) 8월 12일 제15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 수상.

허문영(AWASB 4기 오토스윙 대표) 최근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

문형구(영문73-77 고려대 명예교수) 8월 18일 제24회 한국경영학회 하계 융합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 수상.

윤종규(대학원82-85 KB금융그룹 회장) 8월 18일 제24회 한국경영학회 경영자대상 수상.

황동혁(신문90-95 영화감독) 9월 12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감독상 수상.

이수지(회화92-96 그림책 작가) 최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가 수여하는 제36회 인촌상(언론·문화 부문) 수상자에 선정.

권성훈(전기공학 94-98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최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가 수여하는 제36회 인촌상(과학·기술 부문) 수상자에 선정.

김준성(물리94-98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8월 14일 한성손재한학회가 수여하는 '제5회 한성과학상' 물리학 분야 수상.

김률(화학03-08 지능인사이트연구소 의과학연구원) 8월 19일 2022 두산연강 학술상 의학논문 부문 수상.

김성연(화학03-09 모교 화학부 교수) 8월 14일 한성손재한학회가 수여하는 '제5회 한성과학상' 화학 분야 수상.

김윤호(기계항공 08-13 MIT 박사) 최근 세계적 테크 매체인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하는 글로벌 '35세 미만 젊은 혁신가(U35)' 수상자에 선정.

엄태정(조소58-64 모교 명예교수) 8월 2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아라리오뮤지엄인 스페이스에서 '은빛 날개의 꿈과 기쁨'을 주제로 개인전.

김인규(정치69-73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LG전자의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 조직위원장에 맡아 8월 10일 예선전 개최.

이동호(의학73-79 일석학술재단 이사장) 10월 9일 플라자 호텔에서 제20회 일석국어학상과 13회 일석국어학위논문상 시상식 개최.

김병종(회화74-81 모교 명예교수) 10월 29일까지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에서 '김병종 40년, 빛은 잠들지 않는다'를 주제로 200여 작품 선보이는 특별전 개최.

서울대총동창회쇼핑몰 Mall SNUA 오픈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원 전용 쇼핑몰 Mall SNUA가 8월 31일 오픈했습니다. 동문 기업인들의 호의적인 입점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우수한 상품을 타 쇼핑몰에 비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이용방법

- mallsnu.com 접속 또는 서울대총동창회 홈페이지(www.snu.ac.kr) 접속 후, 링크를 통하여 접속 가능
- Mall SNUA 회원 가입 → 동창회원 인증 (영업일 기준 최대 1~2일 소요) 후 승인 → Mall SNUA 입점 상품 확인 → 쇼핑몰 연회비 10만원 결제 → 상품 구매 (회원승인문의: 02-6730-7209)
- 현재 입점처: 삼성전자, LG전자, 삼익악기, 패션형지, 깨끗한나라, 삼원가든, 차이797, 농생대물, 볼빅 등

오픈 이벤트

- 회원 가입(연회비 결제) 및 구매한 동문들에게 추천을 통하여 푸짐한 경품 제공 (디지털 피아노, 기타, CGV 예매권, 도미노피자 쿠폰, 골프장 무료이용권, 펜션숙박권 등)
- LG전자, 삼익악기 등 입점처 오픈 기념 특가 프로모션 진행 (자세한 사항은 mallsnu.com 참조)
- 오픈 이벤트 관련 문의: 02-336-9194

이벤트

동문칼럼

한국판 이중결정을 생각할 때다



신각수
법학73-77
전 외교부 차관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 회담이 결렬된 이래 교섭 재개를 거부한 채 핵·미사일 능력을 집중적으로 늘려왔다. 올해는 연 기준 역대 최대를 넘어선 다양한 미사일 실험으로 고도화·다양화를 꾀하며 미사일 방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60여 개의 핵탄두와 함께 매년 핵탄두 6~10개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하는 가운데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북핵 시계바늘은 빠른 속도로 '사실상 핵무장국가'의 완성을 알리는 이정표를 향해 내닫고 있다. 수년 내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100여 개를 넘는 핵탄두를 보유함으로써 2차 타격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지구촌 전체의 안보를 뒤흔들 큰 전환점(game changer)이 될 것이다.

북핵문제는 지난 30여 년간 크게 세 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1993년 1차 위기는 북미 협상 결과 제네바 합의로 봉합하였으나,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발각으로 파탄되었다. 2차 위기는 2005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채택으로 진전이 있었으나, 북한의 검증 거부와 1차 핵실험으로 2008년 파탄이 났다. 2017년 화성 15호 미사일실험과 6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3차 위기도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함으로써 비핵화는 짙은 안개 속에 갈 길을 잃었다. 결국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개 강대국과 명목 GDP 기준 북한보다 58배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은 북한에 속아서 같은 말을 세 번이나 산 셈이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합의-이득-위반-재도발 패턴을 깨지 못 한 채, 북한에 생존을 위해 핵

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강제하지 못함으로써 북핵 폐기에 실패하였다.

북핵 대응전략은 비핵화(Denuclearization), 억지(Deterrence), 방어(Defense)의 3D를 축으로 한다. 비핵화는 새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였지만, 북한이 핵을 국제라 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김정은체제 10년의 큰 성과로 본다는 점에서, 교섭 재개가 불확실하고 재개되어도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실패로 끝난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했던 것 이상으로 북한이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북한은 미중 갈등을 활용하여 중국을 뒷배로 생존의 안전판을 확보하고 있다. 바

북한이 좌우해온 한반도 핵문제 협상진척 없으면 전술핵 갖춰야

이든정부는 북핵 교섭의 조건 없는 재개를 제안하고 있지만, 북핵문제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우크라이나전쟁, 대만문제, 이란핵합의 재개 등에 밀려 동력을 잃어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 시즌2와 비슷한 양상이 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도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는 물론 의장성명 채택조차 실패한 사실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요원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핵화 교섭의 문은 열어두어야겠지만, 비핵화를 위한 기회의 창은 거의 닫혀가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 판단 위에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는 억지와 방어를 강화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시점이다. 이를 위한 우리 국방력 강화와 한미 연합역지력 제고에는 상당한 선행시간(lead time)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는 3축(K) 체제인 킬체인(Kill Chain), 한 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보복 전략(KMPR)의 조기 추진과 한미 확장억지전략협의회(EDSCG)의 재가동을 중심으로 대처하려 한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능력의 획기적 향상과 전술핵 개발에 비추어 대북 억지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1979년 NATO가 소련의 SS-20 중거리미사일 위협에 대항하여 취했던 '이중결정(double-track decision)'과 유사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NATO는 4년 교섭시한 내에 진척이 없으면 미국 퍼싱II 미사일과 BGM-109G 순항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한다는 이중결정을 하였다. 협상에 진척이 없자 1983년 약속했던 미사일을 배치하였고,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체결로 양측 모두 철수하게 되었다.

당시 여당과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중결정을 관철했던 헬무트 슈미트 총리는 그 후과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사민당 출신임에도 소련의 중거리 미사일이 유럽과 미국을 분리하여 유럽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소신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였다. 당시 유럽 상황과 현재 한반도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핵위협이 중대성·긴급성 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에서 우리도 북핵 대응전략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협상의 시한을 3년 정도로 설정하고 기한 내에 실질적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방어 면에서도 SM-3 Block IB(IIA)를 포함한 실험적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서두르고, 중국 압박 수단으로 미사일방어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의 핵사용 위협이 NATO의 지원·개입을 제약한 것처럼, 북한 핵무력의 완성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작동을 제약하는 동시에 북한의 선제핵사용 방침과 불안정한 핵통제로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크게 높였다. 지난 30여 년간 북핵 게임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좌우하였다. 이제는 북핵 게임을 주도하기 위한 반전 카드를 찾아야 하며 그런 맥락에서 한국판 이중결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느티나무 칼럼

K컬처 시대, 전통문화의 도전을 응원한다



신에리
영문87-91
JTBC교양팩추얼본부장
본지 논설위원

'에헤요~ 베 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빨간 염색 머리에 새까만 선글라스, 뽀짝이 바지 차림의 남자가 온몸으로 리듬을 타며 '베틀가'를 부르는 모습에 전 세계가 열광했다. 지난 2017년 미국 공영라디오 NPR의 인기 프로그램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 아시아 출신 최초로 출연한 밴드 씽씽의 보컬 이희문 애기다. 경기민요 이수자인 그

는 늦깎이로 국악에 입문한 뒤 우리 민요에 재즈·디스코·록 등 다채로운 장르의 색깔을 덧입히는 음악 작업을 해왔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국악계의 이단아, 혹은 파격의 아이콘. 얼마 전 필자가 기획·제작 중인 JTBC '차이나는 K클래스'에 출연한 그에게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

"전통이 박제화된 채 잊혀져 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답이 돌아왔다. 한때 이 땅의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던 경기민요를 소수의 국악인들만 부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깨뜨리고 싶었다는 거다. 그의 취지에 심분 공감해 이희문 편에 제작진이 붙인 제목은 이랬다. 세상 '힙'한 요즘 노래, K민요-

'차이나는 K클래스'는 요즘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K컬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20부작 특집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K드라마와 영화, K팝이 갈수록 각광 받는 반면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는 여전히 관심 밖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새삼 절

감하게 됐다. 앞서 얘기했듯 이희문이 속한 민요 밴드의 공연에 먼저 반응을 보인 것도 해외 팬들이었다. 우리가 국악을 케케묵은 유물로만 취급하는 사이, 최신 감각으로 '힙'하고 '핫'하게 재탄생한 그들의 음악이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거다.

K팝스타들이 최근 잇따라 시도한 국악 크로스오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낳고 있다. BTS 멤버 슈가의 '대취타'를 접한 글로벌 아미들은 도입부의 태평소 소리에 "멋지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거문고 연주로 시작하는 블랙핑크의 신곡 '핑크 베놈'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2억

회를 넘어섰다. 전통을 올곧게 보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대와 호흡하며 다채롭게 변주할 필요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차이나는 K클래스'에 나온 또 다른 걸출한 소리꾼 이자람이 기존의 판소리 다섯 마당(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에 얽매이지 않고 창작 판소리에 뛰어든 이유도 그래서다. 춘향가도, 심청가도 솔직히 요즘 잣대로 보면 청중이 불편하게 여길 구석이 적잖은 게 사실이다. 동시대성을 화두로 붙잡은 이자람은 그간 현대 한국 사회의 면면을 이야기하는 '사천가' '역척가' 등을 새롭게 만들어 꾸준히 무대에 올려왔다. 그 결과 이들 작품 역시 높이높은 언어의 장벽을 깨고 여러 해외의 투어 공연에서 기립 박수와 함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연일 쏟아지는 K컬처 예찬에 너무나 뿌듯함을 느끼는 요즘. 조금 더 눈과 귀를 열어 자랑스러운 우리 전통 문화에도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무엇보다 대중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용기 있게 새로운 도전에 나선 예술인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길!

동시대와 호흡하는 국악인 눈길 전통문화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1 듀오 결혼정보업계 1위 (2021년 매출액 기준)

대표이사 박수경 [84인 소비자학과]

결혼해 듀오



결혼이
정보만 믿는
사람이
합니까?
이것
입니다.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1577
8333

내 인생의 스티커 메시지

추억의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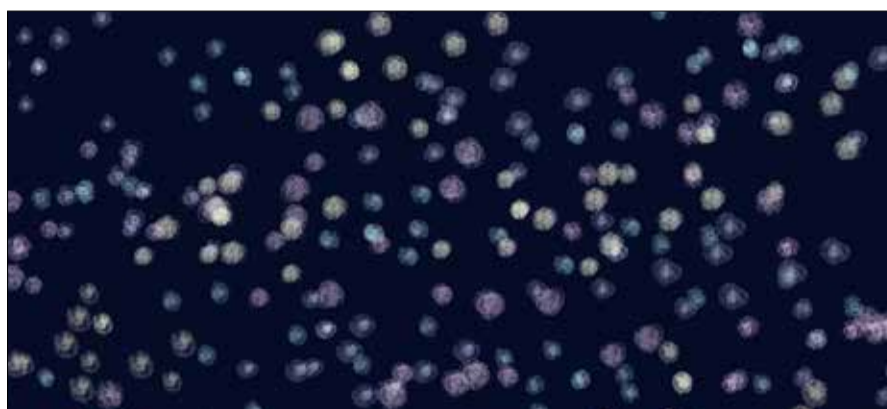
김병희
국문82-86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전 한국광고학회 회장

진리는 우리 아닌 '나의' 빛 그 깨달음 인생의 지침 됐다

돌이켜보면 대학 시절은 암울한 시기였다.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투쟁이 계속돼 캠퍼스에는 늘 최루탄 연기로 가득했다. 운동권이었던 아니었던 모두가 힘든 시절을 보냈다. 어떤 친구들은 '시대와의 불화'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몇 권의 책을 읽은 다른 친구들은 녹두거리의 술집에서 내재적 모순덩어리로 가득한 한반도 남쪽의 기독교 세력들을 타도해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운동권이 아니었던 나는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지도 못하고 가두 투쟁에 적극 나서지도 못해 종종 부끄러움을 느꼈다.

웃풍이 심한 계절이었지만 당시의 나는 적극적으로 나설 처지가 못 됐다. 내 세상에 있던 여자친구는 느닷없이 싸늘한 시선으로 작별을 고해왔고, 내 세상을 만들어준 아버지는 싸늘한 시선으로 떠나셨기 때문이었다. 둘 다 작별의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운동권이 사랑한 대상이 조국과 민족 같은 거대한 것이었다면, 내 사랑은 아버지나 여자친구 같은 개인적인 것이었다. 개인적인 사랑을 추억하며 짙은 허무감에 빠져 허우적거렸으니 거대한 것은 다음 문제였다. 거대한 것과 개인적인 것에 대한 사랑은 같은 무게를 지닌다는 사랑의 등가성(等價性)을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고민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나치던 서울대의 슬로건이 떠올랐다.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Veritas Lux Mea." 왜 진리를 우리의 빛이라 하지 않고, 나의 빛이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에서 남의 학실에서 비켜서 스스로 찾는 진리가 참



일러스트 김나은(디자인 4학년) 재학생

진리라는 뜻을 담았으리라. 하지만 나는 모두가 열광하는 거대한 것보다 개인적인 고뇌가 진리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 처지에 맞춰 진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합리화했다.

진리는 우리의 빛이 아닌 나의 빛이라는 깨달음은 어쨌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지침이 됐다. 대학교수로서 논문을 쓸 때도 남의 학설을 인용하는 데 치중하기보다, 내가 발견한 '나의 빛'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최근에는 '스티커

메시지'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한 번에 착착 달라붙게 하는 메시지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단순성(S), 표적화(T), 흥미성(I), 구체성(C), 핵심어(K), 정교화(E), 상관성(R) 같은 7가지의 스티커 원칙은 어디에도 없는 '나의 빛'이었다.

세월이 흘러 운동권 출신들이 거대한 것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개인적인 사랑에 집착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도했다. 전향이나 훼손(毀節) 같은 심각한 표현까지 굳이 쓰고 싶지는 않다. 다

만, 거대한 것을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빛'을 느닷없이 내팽개칠 때는 사랑을 편하게 취사선택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사랑이 어떻게 그리 쉽게 변하지? 나는 뒤늦게 다시 알았다. 우리의 빛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있더라도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허상이며, 진리는 오직 나의 빛일 뿐이라고. "진리는 나의 빛"이란 말은 라틴어 "Veritas lux mea est(진리는 나의 빛이어라!)"에서 동사 '에스트(est)'를 제거한 표현이란 사실이 떠오른다. 우리의 빛이나 남의 빛이 아닌, "진리는 나의 빛이어라!" 앞으로 이 말은 내 인생의 스티커 메시지가 될 것 같다.

*김 동문은 현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광고학회 제24대 회장, 한국PR학회 제15대 회장, 정부광고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 서울브랜드위원회 제4대 위원장으로 봉사했다. 그동안 '스티커 메시지: 스킵되지 않고 착착 달라붙는 말과 글을 만드는 법'을 비롯한 60여 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한국광고학술상 대상(2011)을 수상했다.

'3저(低)식품 진흥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동문기고
김동환
식품영양산업CEO과정 4기
농업회사법인 가이아 대표

권위 있는 의학지널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의 2014년 논문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나트륨 하루 섭취량은 WHO의 권장량(2g)을 초과해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 사망자가 165만명에 이른다. 짜게 먹는 탓에 심혈관 질환으로 일찍 죽는 사람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에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 등 3개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10년 전인 2012년 보건복지부가 1일 섭취권장량 2000mg을 목표로 '삼삼급식소 지정' 등 다양한 저염·저당 섭취 줄이기 사업을 꾸준히 벌여와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국민 1일 나트륨 섭취량은 2018년 평균 3289mg(이전 4831mg)으로 크게 줄었고, 당류 섭취량도 10.4% 줄어 뇌혈관 질환 사망자도 20% 감소했다. 이런 결과는 국민의 '식습관 개선'과 함께 '국제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나트륨뿐 아니라 탄수화물, 당류(3白)의 과다 섭취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성인병의 주원인이 된다. 이들 질병은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지출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필자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년간 '3저(低) 식품'에 대해 연구해왔다. 3저 식품은 성인병 등 질병예방을 통해 의료비 절감으로 국민 실질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 또 잉여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로 연관산업 발전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농축수산업과 식품제조업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필자는 이를 위해 '3저 식품진흥법'(가칭) 제정을 제안한다. '3저 식품진흥법'은 삶의 질을 높이고 막대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단맛·짠맛과 포만감 대체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식품에서 단맛·짠맛·포만감은 유지하되 당과 나트륨 열

량 함량이 50% 미만인 식품 제조를 쉽게 하고 대중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늘린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 판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체는 정해진 판매대를 설치하여 국민(소비자)의 3저 식품 접근성을 높인다.

셋째, 3저 식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저당·저염·저열량의 '3저 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기업에

겐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금염(禁鹽)·금당(禁糖)·금열량(禁熱量) 보합을 개발하여 3저 식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3저 식품 조합을 결성해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저 식품은 세계적인 새로운 산업으로 모든 국가의 고민이자 꿈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이 K-FOOD로 먼저 시행할 경우 연 78조 달러 규모의 세계 식품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서울대 총동창신문

발행인 김충섭	편집인 이경형	편집장 김남주	기자 나경태 박수진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이메일 news@snu.ac.kr
편집디자인 Sac design	인쇄 중앙일보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EEE DiscoveryPoint Communications(IDPC)

IEEE가 만든 첨단 통신산업 R&D를 위한
All-in-One Platform

Trial가능. 문의 02-3474-5290
이희진 과장 hjlee@kitis.co.kr
김은진 대리 ejkim@kitis.co.kr

IEEE

Authorized Dealer

키티스 産學研情報(株)
KITIS Info. & Co., Ltd.
대표 홍영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종신이사)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갑니다 SNU이음장학금으로 당신의 마음을 이어주세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 견문 기회를 지원하는 SNU이음장학금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동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홍보동영상에는 SNU이음장학금 후원자와 장학생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동문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바로보기



SNU이음장학금



서울대학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SNU이음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의 해외 방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SNU이음장학금은 한국과 해외, 선배와 후배, 동문과 비동문 등 모두의 마음을 잇고자 합니다



더 큰 꿈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SNU이음장학금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이어주세요



마음을 잇다
SNU 이음장학금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단 참여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1666-2930 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SNU 이음장학금 간단 참여신청서 [EUM22-09]

성 명: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입학년도(기수): _____

약 정 금 액: 정기후원 매월 _____ 원
 일시후원 일금 _____ 원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의 대표모금기관입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문의: 발전기금(접수) Tel. 02-871-8004 Fax. 02-872-4149 E-mail. snuf@snu.ac.kr